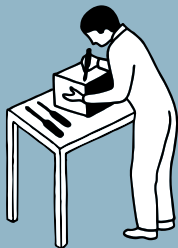




# 청년과 기술 배움에서 일터로





# 청년과 기술 배움에서 일터로

## 요약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본 보고서는 국제사회를 대표하여 유네스코가 발간하는 독자적인 출판물로서, 보고서 작성팀과 많은 관계자, 단체, 기관과 각국 정부가 참여한 공동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이 보고서에 사용된 명칭과 소개된 자료는 어떤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그 당국의 법적 지위 또는 그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요약본에 포함된 내용의 선택과 의견에 관한 책임은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현황 보고서 작성팀에게 있으며, 유네스코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거나 유네스코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보고서의 관점과 견해에 관한 종합적 책임은 작성팀의 팀장에게 있습니다.

**EFA 세계 현황 보고서 작성팀**

팀장: Pauline Rose

Kwame Akyeampong, Manos Antoninis, Madeleine Barry, Nicole Bella, Stuart Cameron, Erin Chemery, Diederick de Jongh, Marcos Delprato, Hans Botnen Eide, Joanna Harma, Andrew Johnston, Lena Krichewsky, Francois Leclercq, Elise Legault, Leila Loupis, Alasdair McWilliam, Patrick Montjourides, Karen Moore, Claudine Mukizwa, Judith Randrianatoavina, Kate Redman, Maria Rojnov-Petit, Marisol Sanjines, Martina Simeti, Asma Zubairi

『EFA 세계 현황 보고서』는 독립적인 연간 발행물로서 유네스코가 담당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Director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Team  
c/o UNESCO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e-mail: [efareport@unesco.org](mailto:efareport@unesco.org)  
Tel.: +33 1 45 68 07 41  
[www.efareport.unesco.org](http://www.efareport.unesco.org)

**EFA 세계 현황 보고서 목록**

- 2011. The hidden crisis: Armed conflict and education
- 2010. Reaching the marginalized
- 2009. Overcoming inequality: why governance matters
- 2008. Education for All by 2015 – Will we make it?
- 2007. Strong foundations –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 2006. Literacy for life
- 2005. Education for All – The quality imperative
- 2003/4. Gender and Education for All – The leap to equality
- 2002. Education for All – Is the world on track?

보고서 발행물에서 잘못되거나 생략된 부분은 온라인 버전 ([www.efareport.org](http://www.efareport.org))에서 수정될 것입니다.

© UNESCO, 2012  
All rights reserved  
First edition  
Published in 2012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Graphic design by FHI 360  
Layout by FHI 360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in Publication Data  
Data available  
Typeset by UNESCO  
ISBN 978-92-3-104240-9

한국어판 (c)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펴낸이: 민동석(사무총장)  
번 역: 이봄미  
감 수: 김혜민, 김희웅, 김명신  
주 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ED/2012/BK/4  
이메일: [education@unesco.or.kr](mailto:education@unesco.or.kr)  
웹사이트: [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

Cover illustration  
© UNESCO/Sarah Wilkins

# 머리말

열 번째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현황 보고서』가 발간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세 번째 목표는 모든 청년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덟 명의 청년 중 한 명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과 훈련으로 습득하는 기술이 청년의 복지와 성공을 보장합니다. 청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청년의 기술이 중요해진 시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학습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잠재성과 경제적 능력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EFA 세계 현황 보고서』는 우리에게 교육이 단지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청년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장을 찾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들이 속한 지역과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은 세계 경제 속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6개의 EFA 목표에서 명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에는 영유아 교육과 초등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개선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2015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계는 아직 목표 달성을 위한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목표 달성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아동 수의 감소 속도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 문해와 교육의 질은 여전히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발전 과정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절한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빈곤 탈출을 위한 청년의 기술 습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 청년들은 기후 변화와 농장 규모의 축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거나, 농장 밖에서 일할 기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FA 세계 현황 보고서』는 전 세계의 약 2백만 명에 달하는 청년이 여전히 적정 수준의 기초 문해력과 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초 문해력과 수리 능력은 향후에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이 모든 면에서 특히 여성과 빈곤층은 소외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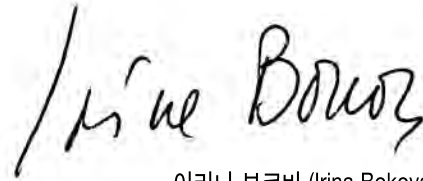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청년실업자와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는데 실패하는 청년들의 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을 통해 우리는 이들의 학습 수요를 2015년까지 충족시켜야 하며, 이후에도 그 성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중등학교 저학년 과정의 보편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교육 공여국들의 원조는 감소하고 있고, 이는 매우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오늘날의 위기로 정부 예

산에 대한 압박이 있지만,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2000년 이후 달성한 성과들을 후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교육 예산이 한 개인의 인생에 열 배에서 열다섯 배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와 공여국들은 반드시 교육 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아야 합니다. 각국 정부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의 삶에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자원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모든 전략 실행에서 취약 계층의 수요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전 세계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가며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리나 보코바 (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

# 서장

세네갈 다카르에서 계획한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목표 달성 기한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2000년도에 164개국이 함께 약속한 공동 목표의 진척 현황에 대한 점검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점검 자체를 넘어 미래 국제 교육 목표를 정의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새로운 체제를 고안하는 데 교훈과 함께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올해 『EFA 세계 현황 보고서』는 EFA 목표의 달성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몇몇 최빈국의 EFA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은 각국 정부와 원조 공여기관이 함께 노력하면 이를 수 있는 성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 초등학교 졸업 후 중등교육 기관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2012년 『EFA 세계 현황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장에서는 6개 EFA 목표의 진전 상황과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재정에 대한 분석을 한눈에 보여준다. 둘째 장에서는 EFA의 세 번째 목표를 다루고, 특히 청년의 기술 습득에 대한 학습 수요의 분석을 제시한다.

## 주요 내용(Highlights)

- 목표 1: 영유아 보육과 교육 분야에서의 진전이 너무 느리다. 2010년에 다섯 살 이하 아동 중 28%가 발육 부진을 겪었고, 전 세계 어린이의 절반 이하만이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다.
- 목표 2: 초등교육 보편화의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학교 밖 아동 수가 2010년에 6천1백만 명으로 침체되어 있다. 학교 밖 아동 100명 중 47명은 미래 취학 가능성이 없다.
- 목표 3: 많은 청년들이 기초 능력을 계발하지 못하고 있다. 123개의 최빈국과 저소득 국가의 경우 15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인구 중 약 2억 명이 초등교육조차 이수하지 못했다. 이는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 목표 4: 성인 문해는 여전히 달성하기 힘든 목표로 남아있다.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성인 비문해율은 단 12%만 감소했다. 2010년에 약 7억 7천5백만 명의 성인 비문해자가 있으며, 이중 3분의 2는 여성이었다.
- 목표 5: 양성 격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에 17개국에서 아직도 초등학교 남학생 열 명 대비 여학생 비율이 아홉 명 이하로 나타났다. 중등학교 양성평등을 달성하지 못한 96개국 중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남학생들이 불리한 상황에 있다.
- 목표 6: 세계 학업 성취도 격차에는 진전이 없었다. 많게는 2억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4학년에 진급해도 여전히 읽거나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분석된다.



# 1장.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점검



2010년에  
171백만명의 5세  
이하 어린이들이  
발육 부진이나  
심한 발육 장애를  
가지고 산다.

## EFA 6개 목표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확대

영유아기는 향후 교육과 삶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시기다. 그러므로 영유아에 대한 관심은 EFA와 전반적 국제 개발 의제의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이다.

영양 결핍을 경험한 굶주리고 아픈 어린이들은 이후 학습이나 취직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다. 영유아 보건이 향상되고 있다는 징조가 있지만 특정 몇몇 국가에 한정되는 성과이며, 이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연간 영유아 사망률 감소는 1990~2000년의 1.9%에서 2000~2010년 2.5%로 가속화되었다. 최근 연구는 영유아 사망률 감소의 절반 이상이 출산 적령기 여성에 대한 교육 확대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1990년에 비해 오늘날 생존율은 100명의 신생아 중 세 명이 더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28개 국가에서 100명의 아이들 중 열 명이상이 5세 이전에 사망한다. 그 28개국 중 25개국은 사하라이남 지역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영양 결핍이다. 영양 결핍은 어린이의 인지적 발전과 학습 능력 저하의 원인이기도 하다. 발육 장애, 혹은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키는 영양 결핍의 명백한 증상이다. 세계적으로 2010년에 171백만 명의 5세 이하 어린이들이 발육 부진이나 심한 발육 장애를 겪었다. 현 추세를 따르면 2015년에도 발육 장애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여전히 157백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5세 이하 어린이 네 명 중 한 명에 해당한다.

지방에 살거나 빈곤 가정 어린이의 경우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영양 결핍은 단지 일반적인 식량 지급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

다. 문제는 최빈층이 직면하는 식량, 양질의 보건, 깨끗한 식수,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다. 예를 들어 네팔의 경우, 부유층 자녀의 26%만이 발육 장애를 겪는데 비해 빈곤층 자녀의 56%가 발육 장애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도시 지역에서는 27%가 발육 장애를 겪는데 비해 지방에서는 그 수치가 42%이다. 식량가격의 지속적인 불안정성,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 많은 지역 어린이의 영양 부족 문제의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의 상반된 예는 영양 문제를 정치적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브라질은 도시-농촌 간의 영양 부족 격차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는 산모의 교육 향상, 산모와 아이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식수와 공중위생 시설 제공, 특정 수혜대상에 부합한 사회적 지원 제공 등 이 모든 요소의 결합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볼리비아, 과테말라, 페루와 같은 국가에서 특히 농촌 지역 아동의 영양 결핍 비율은 여전히 소득 수준에 비해 높았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는 양질의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호주, 인도, 모잠비크, 터키 그리고 우루과이와 같은 다양한 국가를 분석한 결과는 유치원 교육의 단기적·장기적 혜택을 입증한다. 이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위한 선행학습부터 집중력 향상과 주체적인 노력 등을 포함한다. 이 모든 요소는 더 나은 학업 성취도와 취직과 연관된다.

최근 OECD가 시행한 2009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설문 조사에 따르면 65개국 중 58개국에서 최소 1년 이상 유치원을 다닌 적이 있는 15세의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고,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했을 시에도 변함이 없었다. 호주, 브라질, 독일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치원 교육의 평균 혜택이 학교를 1년 다닌 것과 동일했다.

1999년 이후, 어린이의 유치원 등록률이 절반 정도 증가했다. 그



러나 여전히 어린이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빈곤국가의 경우 여섯 명 중 다섯 명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 못한 상태다. 유치원에 다님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가장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부유층 상위 20%의 자녀 세 명 중 두 명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이에 반해 빈곤층 하위 20%의 자녀 열 명 중 한 명 이하만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표 1).

유치원 등록률이 낮은 주요 원인은 바로 투자 부족이다. 영유아(초등교육 이전) 분야는 대부분 국가의 교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채 안 되며, 이것은 특히 빈곤국가의 경우 더 낮아지는 추세다. 네팔과 니제르의 경우 국민 총생산(GNP)의 0.1%만을, 마다가스카르와 세네갈의 경우 0.02% 이하만을 유치원 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낮은 투자의 결과, 사립 유치원의 평균 등록률은 33%다. 시리아의 경우 유치원의 총 등록률이 10%이고, 이중 사립 유치원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학비가 있는 사립 유치원의 확대는 등록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빈곤층 자녀들에게 더욱 불리할 것이다. 인도의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주에서는 농촌 지역의 유치원 등록률이 부유층 상위 20% 자녀 중 가장 높다. 이중 거의 3분의 1정도가 사립 유치

원에 다니고 있다. 빈곤층 자녀의 대부분은 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어린이들이 사는 지역 또한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 중국, 페루, 탄자니아 농촌 지역 유치원의 경우 도시 지역 유치원에 비해 적은 수의 실력 있는 교사, 적은 학습 자원과 학생-교사 비율의 불균형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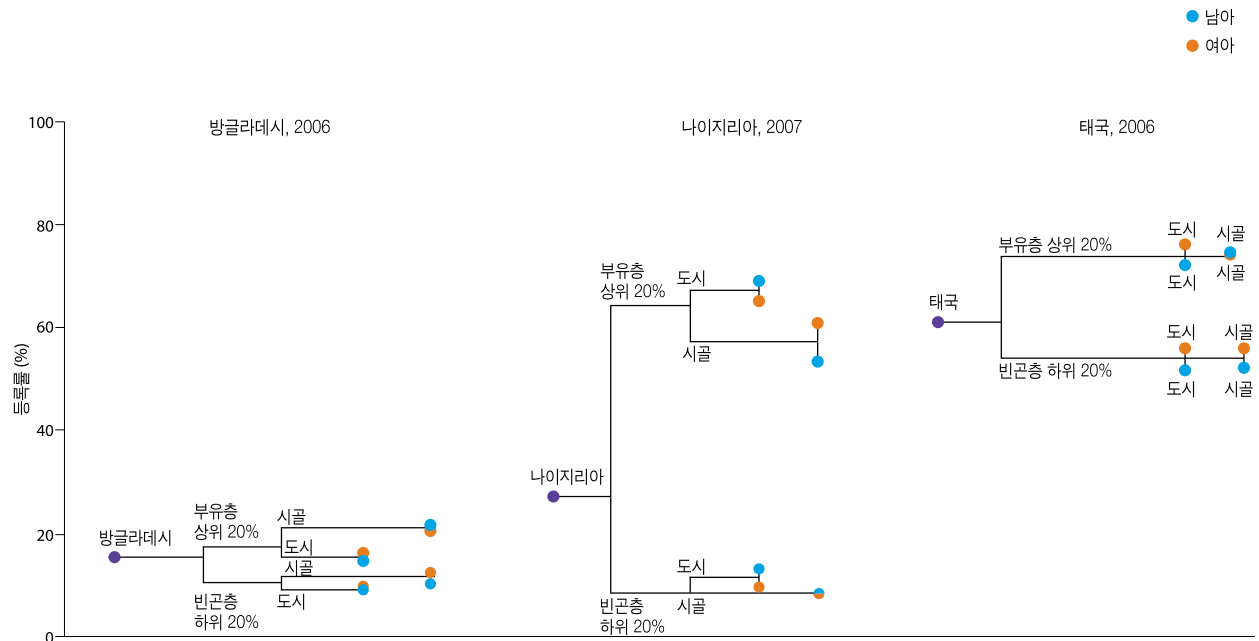
모든 아동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설 확대와 부담 가능한 학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알맞은 연결, 활발한 유치원 활동, 폭넓은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등의 조정을 포함한다.

어린이들이 처한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균형 있는 노력의 중요성은 이 보고서에서 새롭게 개발한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 이 지표는 이 목표와 세 가지 주요 요소인 보건, 영양, 교육에서의 진전을 분석한다.

어떤 국가(예: 칠레)는 이 세 가지 지표에서 동등하게 모두 높은 지수를 보여주는가 하면 어떤 국가(예: 니제르)는 모두 낮은 지수를 보여준다. 또한 어떤 국가는 평균에 비해 한쪽 측면에서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점수를 보여준다. 이것은 특히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자메이카와 필리핀 두 국가 모두 태아 사망률이 1,000명 중

세네갈은 초등학교 이전교육에 국내총생산량(GNP)의 0.02% 이하 밖에 할애하고 있지 않다.

〈표 1〉 국가 내 유치원 교육에의 참여 격차는 매우 크다  
36-59개월 아동의 가정소득, 지역, 성별 별 유치원 등록률



비고: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3개국의 공식 나이는 3세에서 5세임. 나이지리아의 경우, 도시 지역에서는 빈곤층 하위 40%가 표기됨.

출처: Multiple Indicators Cluster Survey 데이터에 근거한 『EFA 세계 현황 보고서』 작성팀(2012) 분석.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의 학교 밖 아동 수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160만 명이 증가했다.

30명 정도의 비율이지만 두 국가의 교육 성적은 매우 다르다. 필리핀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3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들이 38% 밖에 되지 않지만 자메이카에서는 90%다. 이 사실은 영유아 발전의 모든 면을 동등하게 살펴보고 종합적인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 초등교육의 보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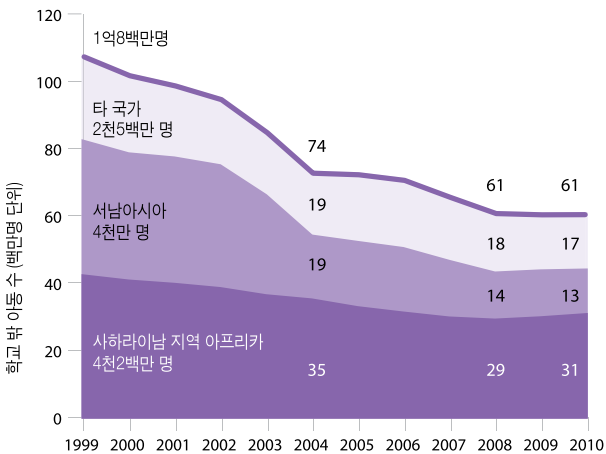
현재 추세로는 초등교육 보편화(UPE)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2000년 다카르의 세계 교육 포럼에서 시작된 좀 더 많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위한 움직임은 거의 정체된 상태다. 1999년 이후 초등학교 나이의 학교 밖 아동 수는 1억8백만 명에서 6천1백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중 4분의 3이 1999년과 2004년 사이에 감소한 수치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거의 없었다(표 2).

1999년 서남아시아와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의 초등학교 다닐 나이의 학교 밖 아동 수가 4천만 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각자 매우 다른 속도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서 2008년 사이 서남아시아의 학교 밖 아동 수는 2천9백만 명이 줄었는데 비해,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는 겨우 1천1백만 명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

2008년에서 2010년 기간만 보면,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의 학교 밖 아동 수는 160만 명이 늘어났으나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60만 명이 줄어들었다. 현재 전 세계 학교 밖 아동 절반이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표 2〉 2000년 다카르 선언이후, 학교 밖 아이들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 속도는 느려졌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의 학교 밖 아동 수, 1999~2010



출처: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 데이터베이스; 부록 통계표 5.

전 세계 학교 밖 아동 수의 거의 절반이 자료 수집이 가능한 국가 중 12개국에 살고 있으며, 그중 나이지리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다. 즉, 전 세계 학교 밖 아동의 여섯 명 중 한 명인 총 1천50만 명의 어린이가 나이지리아에 있다(표 3). 그리고 학교 밖 아동 수는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360만 명이 더 많다. 그와 반대로, 에티오피아와 인도에서는 학교 밖 아동 수가 극적으로 감소했다. 인도의 경우, 2001년에 비해 2008년에 학교 밖 아동 수가 1천8백만 명 감소했다.

이러한 학교 밖 아동 중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뒤늦게 입학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학교를 중퇴해서 재입학 가능성이 매우 낮은 아이들이다. 2010년에는 47%의 학교 밖 아동이 아예 취학 가능성이 없었다. 이 비율은 저소득 국가에서 5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학교에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2015년을 5년 앞둔 2010년에는 29개국이 85% 이하의 순 등록률(net intake rate)을 보였다. 이 국가들은 2015년까지 초등교육 보편화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의 아동 중 2010년에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은 2015년까지 초등학교 교육을 마칠 수 없다. 2010년 70개국에서 순 등록률이 80% 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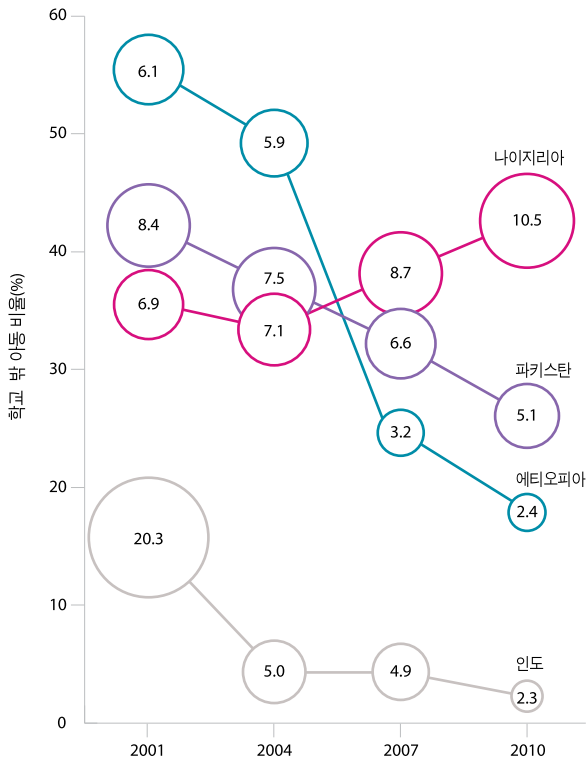
초등교육 보편화를 이루기 위한 관건은 해당 나이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고, 학교 내에서 진급할 수 있게 하며,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2005~2010년 사이에 실시된 22개국의 가구별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38%가 공식 나이보다 2세 이상 많다. 분석에 포함된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에서는 그 비율이 41%다.

빈곤층의 자녀는 특히 학교에 늦게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주된 이유는 학교에서 너무 먼 곳에 살고 있어서, 건강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부모들이 제 나이에 학교에 보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이다. 콜롬비아의 경우, 빈곤층의 42%가 자녀를 입학할 나이보다 2년 혹은 더 늦게 입학시키고 있는 반면, 부유층은 11%만이 그러하다.

늦은 입학은 어린이들이 정규 교육을 마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늦게 입학한 어린이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제 나이에 입학한 어린이들보다 퇴학할 확률이 4배까지 높다.

빈곤 또한 아이들이 학교를 일찍 그만두는 이유다. 우간다에서는 부유층 상위 25%의 어린이 100명 중 97명 비율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80명은 2006년에 마지막 학년까지 다녔다. 반면 빈곤층

(표 3) 나이지리아에서는 학교 밖 아동 수가 매우 많으며 증가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의 학교 밖 아동 수와 비율, 2001~2010년까지



비고: 원의 크기는 학교 밖 아동 수에 비례함. 원안의 숫자는 학교 밖 아동 수를 나타냄. 나이지리아의 2001년 도표는 2000년에 수집된 데이터로 계산한 것임. 인도의 2010년 도표는 2008년에 수집된 것임.

출처: UIS 데이터베이스

하위 25% 어린이 100명 중 90명이 학교에 입학했으나 그중 49명만이 마지막 학년까지 다녔다.

취약 계층 어린이들이 제 나이에 학교에 입학하고, 제 나이에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많은 나라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주된 이유가 학비다. 이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여덟 개 국가에서 공식 수업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15% 가까이 되는 예산을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수업료로 걷고 있다.

부유층은 자녀들의 교육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고 그로 인해 그들은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비용은 사립학교 학비와 사교육비 지출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부유층 상위 20%는 빈곤층 하위 20%보다 자녀의 초등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열 배 가량 많다. 빈곤 계층에게는 매우 저렴한 수업료의 사립 학교조차 접근하기 힘들다. 라고스의 슬럼가에서는 세 명의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비용이 최저 월급의

46%에 해당한다. 방글라데시와 이집트에서는 부유층이 빈곤층보다 추가 수업료를 내 배정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그들은 처음부터 이런 비용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많다.

공식 수업료 폐지는 초등교육 보편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였다. 하지만 정부 또한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또 다른 비공식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학교에서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현금 지원과 같은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은 빈곤 가정이 다른 기본적인 수요를 희생하면서 학교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부유층이 사립학교와 사교육비에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청년과 어른의 학습 및 기술 증진

최근 사회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젊은 사람들의 학습 및 기술증진 기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이 보고서의 주제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은 2000년 EFA 목표 설정 당시 그 모호성으로 인해 주목받지 못한 중요한 문제의 시급성을 일깨워주었다.

일과 삶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정규 중등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아이들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저소득국가의 저학년 중등교육 기관의 총 등록률은 52%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은 곧 몇 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조차 습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급 중등교육 기관(또는 중학교)에 다닐 나이의 청소년들 중 7천1백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었다. 이 숫자는 2007년 이후 변화가 없었다. 전체 미취학 아동의 네 명 중 세명은 서남아시아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1999년에 비해 오늘날 중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수는 25% 더 많다.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에서는 이 기간에 학교에 등록된 학생 수가 두 배로 늘어났지만 2010년도에는 40%로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중등학교 등록률을 보이고 있었다.

어떤 청년들은 직업 기술 교육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다. 1999년 이후 실업계 중등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의 비율은 11%로 유지되고 있다.

기술은 단지 학교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는 기술과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분류하기 위한 넓은 범위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카르에서 EFA 목표가 설립된 지 12년 후

방글라데시와 이집트에서는 부유층이 빈곤층보다 사교육비를 4배 가량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 Giacomo Pirozzi/Panos

119개 국가에서 24%의 젊은 여성들만이 HIV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에, 국제사회는 '삶에 필요한 기술의 적절한 학습을 위한 평등한 기회(목표 3의 핵심)'의 진전이 어떤 것인지, 또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일된 지표와 진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동의를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진전되고는 있으나, 2015년 이전에 목표 3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2015년 이후 세워지는 기술 습득 관련 국제 목표는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진전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가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목표 3을 모니터하기 위한 노력에 문제가 되었던 점을 피하기 위해 수집 가능한 정보에 기반한 현실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다카르 행동 강령에서는 청년들이 삶에 필요한 기술 습득으로 제거 할 수 있는 위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중에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도 포함된다. HIV에 대한 지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추정된 바에 의하면 119개국에서 15~24세의 젊은 여성들의 24%만이, 젊은 남성들의 36%만이 HIV 감염 예방 방법과 감염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구분할 수 알고 있었다.

HIV와 AIDS 감염률이 매우 높은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지식은 매우 낮았다. 2007년에는 남부와 동부 지역 아프리카 15개국 6만 명 정도의 6학년 학생들(평균 13세)을 대상으로 HIV와 AIDS 관련

지식을 평가했다. 이 시험은 참가국의 교육부에서 채택한 HIV 교육을 위한 공식 교과과정 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결과는 공식 교과과정의 방식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36%의 학생들만이 최저 지식수준을 갖추고 있었고, 7%만이 이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그들 스스로의 건강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그들이 특정한 시기에 알맞은 행동을 할 수 없는 미숙한 상태인 경우에 더 그렇다.

HIV와 AIDS에 초점을 맞춘 생활기술교육은 청년들에게 성적인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적극적인 의사소통, 자부심, 의사결정, 협상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인간관계 기술을 다룸으로써 가능하다.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한 민감한 문제에 접근하는 기술 프로그램은 보건 교육이나 보다 폭 넓은 HIV, AIDS 교육과 같은 교과과정의 주요 주제로 소개되어야 한다.

### 성인 비문해율 50% 줄이기

문해는 성인과 그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공여기관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 목표에 대한 성과는

여전히 굉장히 미미한 편이다. 2010년에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성인은 여전히 7억7500만 명 정도 되었다. 이중 절반은 서남아시아, 그리고 5분의 1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2005~2010년까지 146개국 중 81개국에서는 여성 문해율이 남성보다 낮았다. 이중 21개국에서는 문자 해득이 가능한 남녀 비율이 남성 열 명 대 여성은 일곱 명 이하로 극심한 성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성인 문해율은 증가하고 있었다. 1985-1994년에는 76%였으나 2005~2010년에는 84%였다. 그러나 1998~2001년에 성인 문해율이 90%이하였던 47개국 중에서 단 세 개의 국가만이 2015년까지 성인 비문해율 50%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몇몇 국가는 이 목표를 매우 큰 격차로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표 4).

그리고 그 국가 중 문해율이 두 배 증가한 말리와 같이 뛰어난 성

과를 거둔 국가도 있지만, 마다가스카르와 같이 지난 10년간 성인 문해율이 감소한 국가도 있다.

비문해 성인의 거의 4분의 3은 10개국에 몰려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 비문해 인구 중 37%가 인도에 살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비문해 성인 수가 지난 20년간 천만 명이 늘어나 총 3천 500만 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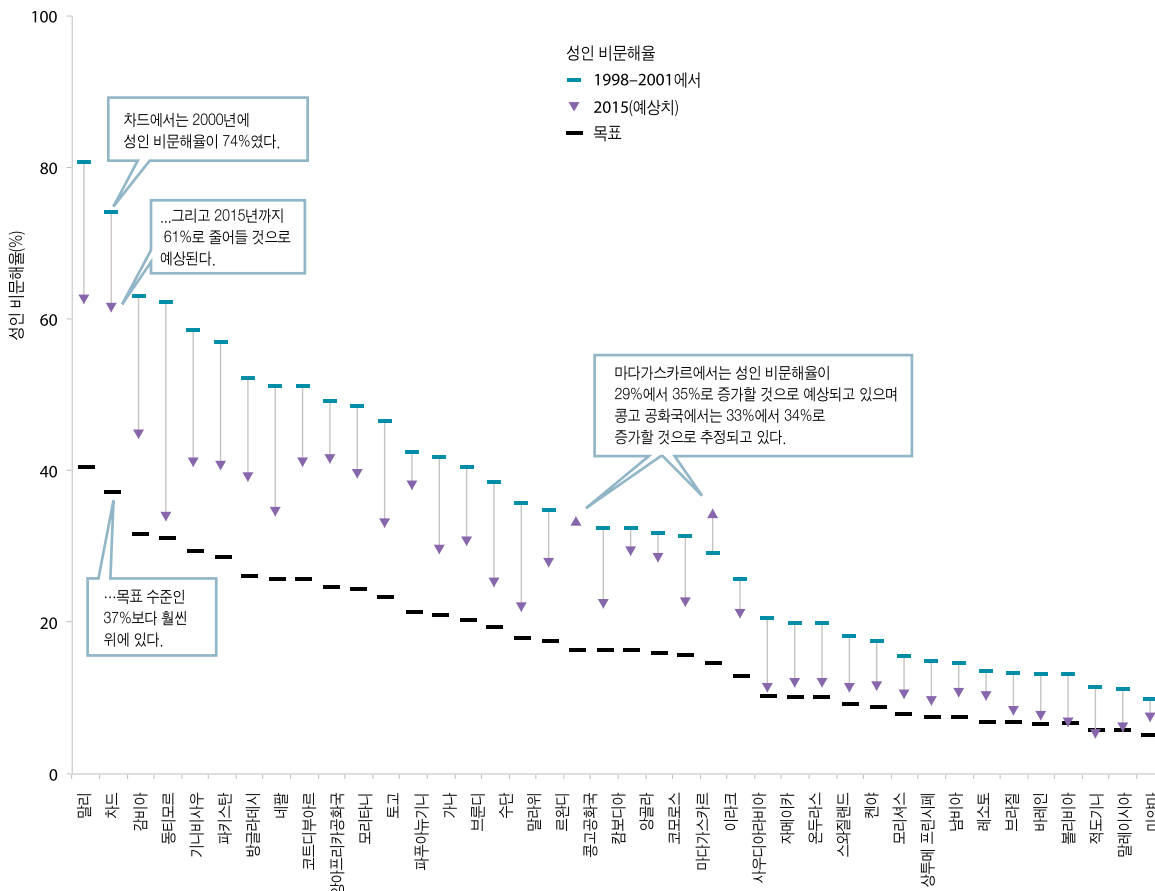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데이터가 문제의 전부를 보여주는가의 여부다. 성인들은 검증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읽고 쓸 줄 아는지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며, 그 결과가 곧 데이터로 수집된다. 따라서 성인 문해력에 대한 풍부한 자료 수집을 위해 문해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쉽게 읽고, 쓰고,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4~5년간의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새로 분석한 가구별 설문조사에

비문해 성인의 4분의 3이 10개국에 몰려 있다.

〈표 4〉 대부분의 국가가 성인 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국가는 목표보다 매우 낮은 달성치를 보일 것이다

성인 비문해율, 1998-2001에서 2015(예상치)



비고: 이 표에 있는 국가는 2015년까지 추정 가능한 국가이며 1998~2001년에 성인 비문해율이 10% 이상이었던 국가임.

출처: 부록 통계표 2; UIS 데이터베이스.

60개국에서  
여아들이  
초등교육을  
받는데 불리함을  
겪고 있다.

의하면 예상보다 많은 저소득, 중·저소득 국가의 아이들이 문해력을 습득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나에서는, 2008년에 6년간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15~29세 사이의 여성 절반 이상이, 그리고 3분의 1 이상의 남성이 한 문장도 읽지 못했다. 나아가 28%의 젊은 여성과 33%의 젊은 남성은 문장의 일부분만을 읽을 수 있었다(표 5).

사람들이 거주하는 환경은 문해력을 습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르단, 몽골, 팔레스타인과 파라과이에서 실시된 문해력 평가와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초기 결과에서는 문해율이 성인의 문해력을 결정짓는 환경과 다양한 실천의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학교의 보편화로 높은 비문해율을 먼 과거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실시한 평가에 의하면 여전히 이 국가에 거주하는 어른 다섯 명 중 한 명, 즉 1억6000만 명 성인의 문해력이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이들은 취업 원서를 내거나 의약품에 쓰인 정보를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효율적인 읽기, 쓰기와 계산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빈곤층, 이민자와 소수 민족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은 특히 더 심각하다.

읽기와 쓰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사회 내에서 문맹으로 낙인되거나 그로 인해 자신감 부족을 겪게 된다. 이것은 성인 문해 사업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이다. 성인에게 일상생활에서 문해력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그들의 사회적 입지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적인 노력과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

### 양성평등 달성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은 기본 인권과 연관되어 있고, 다른 사회경제적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2000년 이후 초등학교 등록률에서의 양성격차를 줄인 것은 EFA 성과 중 가장 큰 성과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2015년까지 초·중등학교에서의 양성평등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좀 더 공평한 교육 기회와 결과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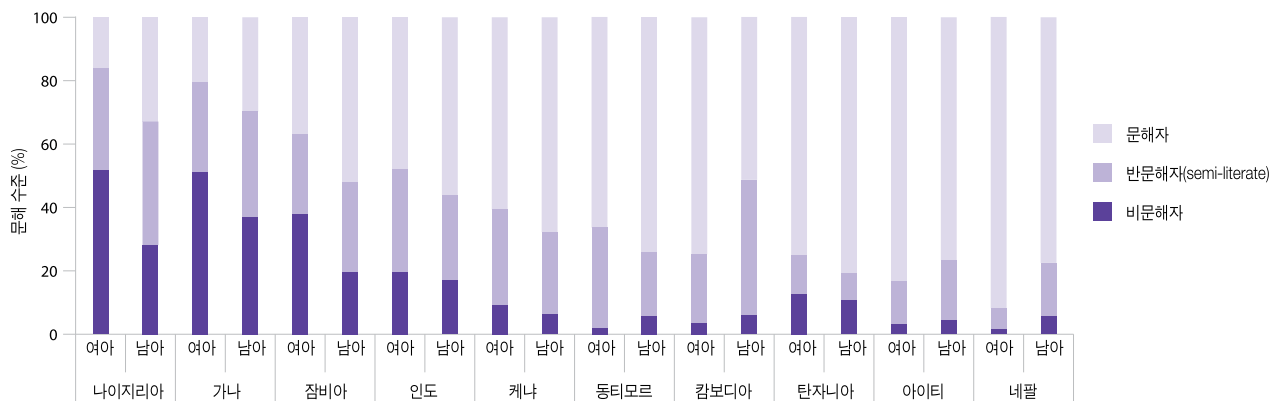
68개국에서는 아직 초등교육의 양성평등을 달성하지 못했고, 60개국에서는 여아가 불리한 상황에 있다. 에티오피아와 세네갈 같은 국가에서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앙골라와 에리트레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여아들의 불평등이 극심한 국가, 혹은 양성평등 지표가 0.7 이하인 국가의 수는 1990년에 16에서 2000년에 11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1밖에 되지 않았다. - 아프가니스탄(표 6). 아프가니스탄은 이 순위에서 맨 마지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양성평등 지표 0.9 이하로 심한 불리함이 있는 국가도 10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1999년과 2010년 두 해 모두 데이터가 있는 167개 국가 중에서 1999년에 33개국이 양성평등 지표 0.9 이하였다. 이중 21개국이 사하라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표 5〉 많은 청년들에게 문해력을 습득하기 위한 기간으로 6년의 학교교육이 충분하지 않다

2005~2011년 사이 선정된 국가에서 6년동안 학교 교육을 받은 15~29세 사이 남성과 여성의 문해 수준



출처: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Data에 근거한 『EFA 세계 현황 보고서』 작성팀 분석 (2012).

2010년까지 이 그룹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2개국을 포함한 17개국밖에 없었다. 부룬디, 인도와 우간다처럼 양성평등을 위한 충분한 진전을 이룬 국가는 여아들의 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동기부여, 여아를 위한 재정지원, 성적인 편견 없는 수업 방식과 수업자료 활용,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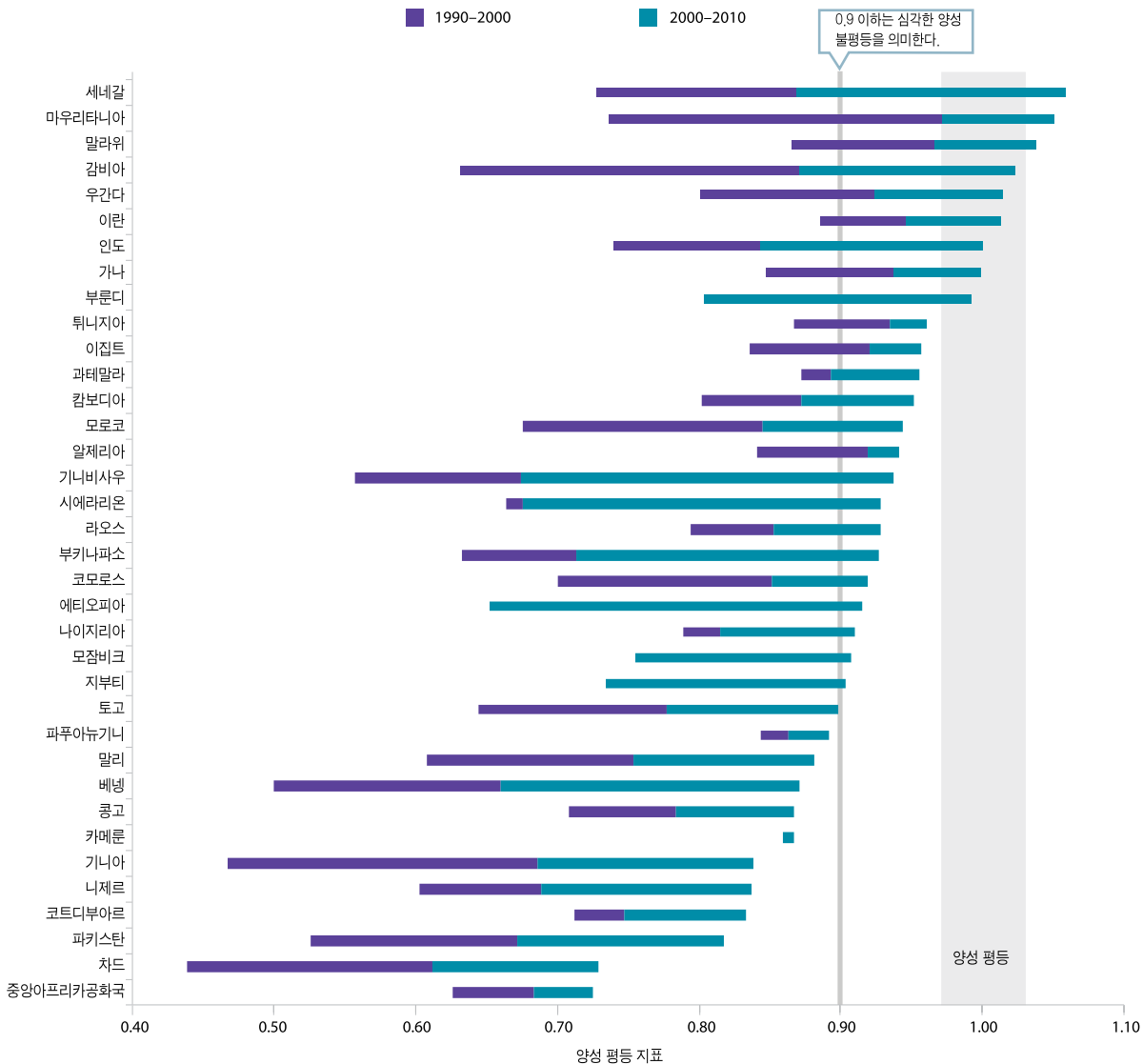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아의 낮은 취학률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 실행한 9개국의 가구별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지만, 입학한 후에는 남자아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이수율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기니아에서는 빈곤층 여아 100명 중 40명만이 초등학교를 마쳤고 반면 남자아이들은 52명이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처음부터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등록률이 더 낮다는 데에 있다. 빈곤층 여자아이들 100명 중 44명이 학교에 입학하는 반면 남자아이들은 57명이 입학한다.

중등교육에서의 양성 불평등이 있는 97개국 중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는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의 수가 더 적다.

〈표 6〉 양성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여아의 학교 입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총 등록률의 양성평등 지표, 1990년에 GPI 0.9 이하였던 국가들, 1990~2000, 2000~2010년



비고: 1990년, 2000년, 2010년 데이터가 있는 국가만 표시됨. 특정 연도에 정보가 없으면, 2년 전이나 후의 수치로 대체함. 아프가니스탄과 오만은 역방향의 추세가 있어 제외됨.

출처: UIS 데이터베이스 .

중등학교에서 양성 격차가 있는 국가들 중 절반 이상이 여학생보다 남학생 수가 더 적다.

이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부유하고 학교 등록률이 높은 편이다. 또한 이 국가들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그리고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남아아이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르완다와 같은 저소득 국가들도 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에서는 남아아이가 중등학교를 중퇴하는 주된 이유가 빈곤과 노동시장에서의 이들에 대한 수요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에서는 15세에서 17세 사이의 남아아이가 열 명 중 여섯 명이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었고 그중 2명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여자아이가 열 명 중 두 명만이 월급 받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남아아이는 또한 선생님의 태도를 포함한 학교 환경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 남아아이가들과 여자아이가들의 학습 방식의 차이점은 유사점에 비해 덜 중요하지만, 교사들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은 이러한 차이에 맞추어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평가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남학교/여학교나 우열반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 바 있었으나 그 결과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남아아이는 특히 읽기와 같은 학습 결과 면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양성 격차에서는 여자아이가들이 더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 남아아이는 지속적으로 수학에서 더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자아이가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내재적 능력에서 여자와 남아아이가들 간 차이는 없다. 읽기 능력에서의 양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모, 교사와 정책 입안자들은 남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남학생들에게 디지털 문서를 읽는데 관심을 가지게끔 이끌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학에서의 양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업과 같은 교실 밖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진전이 격차를 줄이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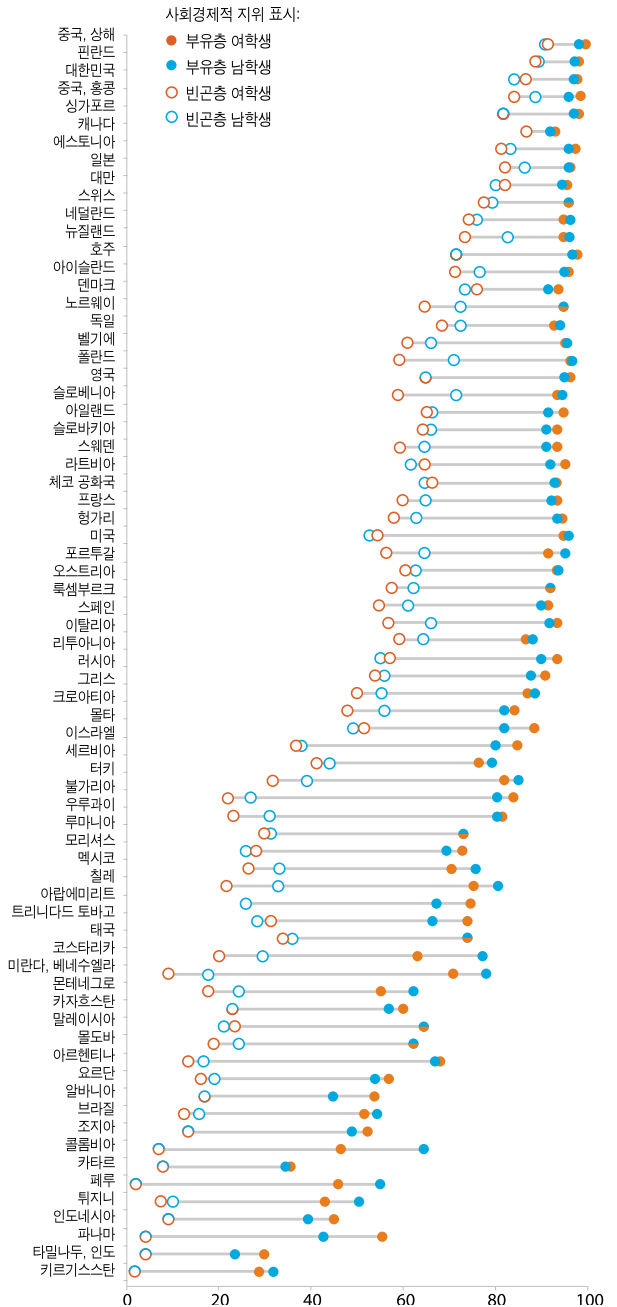
전 세계 6억5천만 명의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의 어린이들 중에서 4학년에 올라가지 못하는 1억2천만 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학교에 있지만 기초 학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1억3천만 명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우리는 학습 결과에서의 불평등 추세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빈곤층 자녀가 학습을 통해 계층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다. 2009년 국제 학생 평가프로그램(PISA)에 참여한 74개국에서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습 성취도가 높았고, 이것은 남녀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7).

〈표 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습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로 본 수학 성적 수준 2이상의 학생 비율, 2009 PISA



비고: 2009년 PISA에 참여한 국가 중에서 아제르바이잔, 히말차르프라데시(인도)와 리히텐슈타인은 포함되지 않았음. 빈곤층/부유층은 PISA의 사회경제적 지위(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index)의 하위/상위 25%를 의미함.

출처: Altinok (2012b); Walker (2011).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중간 소득 국가의 학생 학업성취도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 평균 수학점수가 <수준 2> 이하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중간 소득 국가들은 학습 격차를 줄이고 평균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2003년에서 2009년 사이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25% 수준별로 본 성적이 저조한 학생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중등 학교의 등록률이 이 기간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의 이러한 성적 향상은 1990년대 이후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실시된 사회보호 정책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교사들은 학습 향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여러 지역에서는 특히 훈련받은 교사의 부족이 EFA 목표 달성에 있어 주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최근 추정된 바에 의하면 112개국에서 2015년까지 초등학교 교사 인력을 총 540만 명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초등학교 보편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교사 200만 명과 교사를 그만두는 3백40만 명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교사 채용이 필요하다. 초등교육 보편화를 위해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에서만 2백만 명 이상의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양질의 교육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학생 당 교사 수를 검토해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사 대 학생 비율이 1999년에 26:1에서 2010년에 24:1로 작은 감소가 있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110만 명의 추가로 고용된 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대 학생 비율이 42:1에서 43:1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등록률이 교사 채용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등교육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100개 국가 중 33개국에서 75% 미만의 교사가 국가에서 정한 수준만큼 훈련받지 못했다. 교사들은 그들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대로 훈련받아야 한다. 여러 보고서에서 전 세계 많은 빈곤국가 어린이들이 단어 한 개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서 학교에 다년간 재학 중인 상태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말리에서는 2학년 학생 열 명 중 최소 여덟 명이 모국어의 단어 한 개도 읽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결과는 교사가 어떻게 훈련받는지와 그들에 대한 지원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교육대학의 많은 강의는 교사들의 기초지식 부족을 고려해 가르치는 방식보다 기초 과목 지식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일단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하기 시작하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은 제공하지 않는 실정이다.

각 정부는 저학년의 교수법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사의 사전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교실에서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현직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대신 지식을 좀 더 나은 교실에서의 실행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훈련시켜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은 교육 자원 향상 등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되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드러난다.

### ‘모두를 위한 교육’(EFA) 발전 지표

EFA 발전지표(EDI)는 EFA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국가의 교육 제도의 진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이 중 52개 국가에서는 다카르의 세계 교육 포럼 이후 이 지표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EFA 발전 지표는 1999년과 2010년 사이 52개국 중 41개국에서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 그룹 중 특히 큰 폭의 발전을 보여준 지역은 12개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이고, 그중 에티오피아와 모잠비크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비슷한 점수이더라도 각 국가마다 EFA를 위해 노력하는 분야가 다르다면 걸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와 튀니지의 EFA 발전 지표 점수는 똑같다. 튀니지는 높은 초등학교 등록률과 진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성인 문해율은 매우 낮다. 콜롬비아의 성인 문해율은 높지만 조정된 순등록률(adjusted net enrolment ratio)이 낮고, 특히 진급률도 매우 낮다. 튀니지의 낮은 성인 문해율은 현재 노력이 아닌 역사적인 배경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초등학교 나이 어린이들과 관련된 지표에서의 낮은 점수는 미래에 이 국가가 낮은 성인 문해율을 보여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FA 발전 지표(EDI)에 이 보고서에서 개발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표(ECCE)를 포함하게 되면 어떤 국가에서 영유아 교육을 중시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순위에서 떨어질 것이고, 자메이카와 멕시코와 같은 국가의 순위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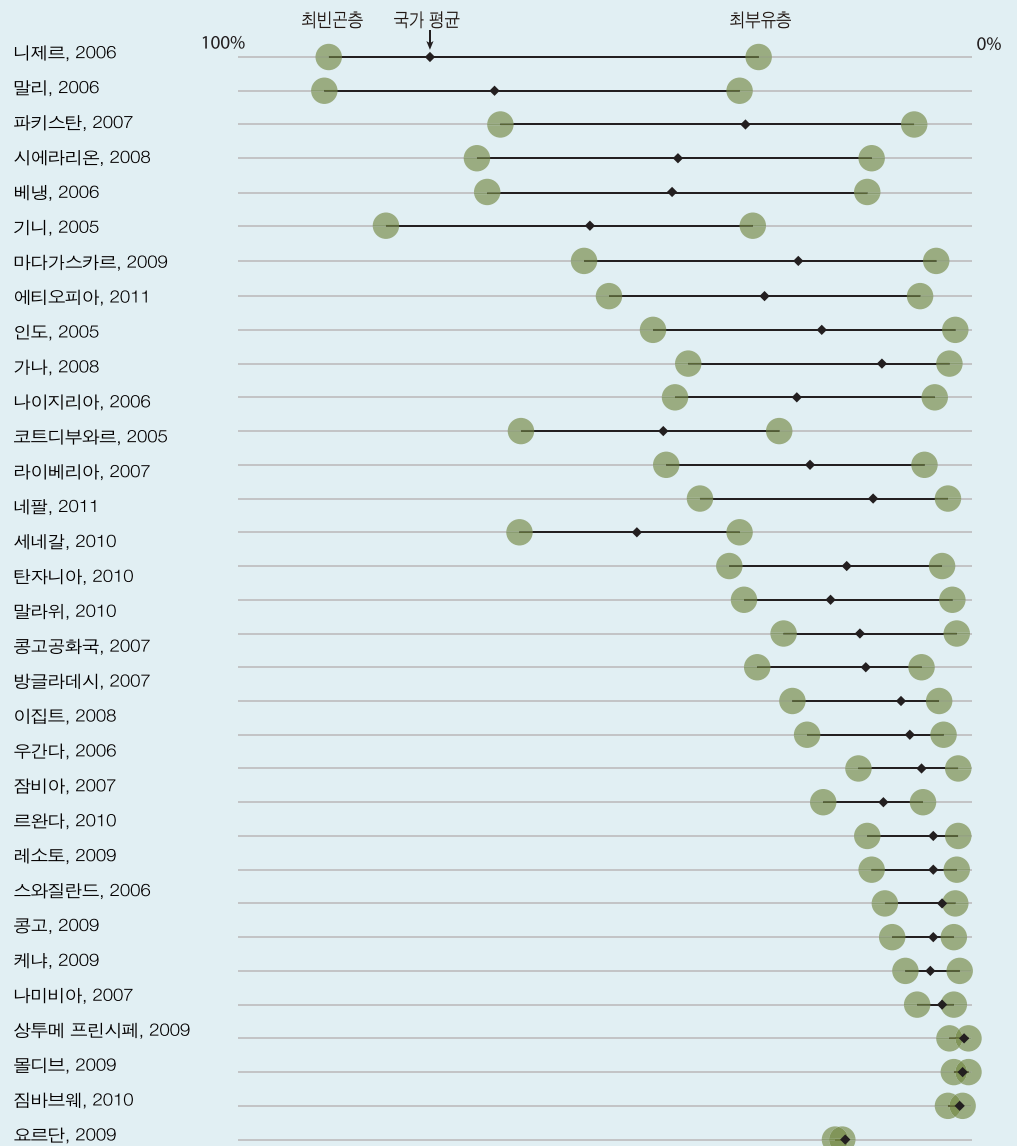
EFA는 모든 목표에 대한 동등한 관심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 성인 문해를 포함한 가장 관심을 덜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모든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영유아시기를 포함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2015년까지  
112개국에서  
총 540만명의  
교사를 고용  
해야 한다.

# 세계 교육 불평등

이 보고서의 발간에 맞추어 『EFA 세계 현황 보고서』 작성팀은 국가 내 교육 불평등 지수를 보여주는 사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전 세계 교육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 on Education: WIDE)를 탑재한 본 웹사이트는 인구와 보건 설문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와 집단별 지표 설문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에서 가져온 최신 데이터를 합쳐놓았다.

어린이들이 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의 빈부 격차는 더 악화되었다  
소득수준별 2년 이하 교육을 받은 17세에서 22세 사이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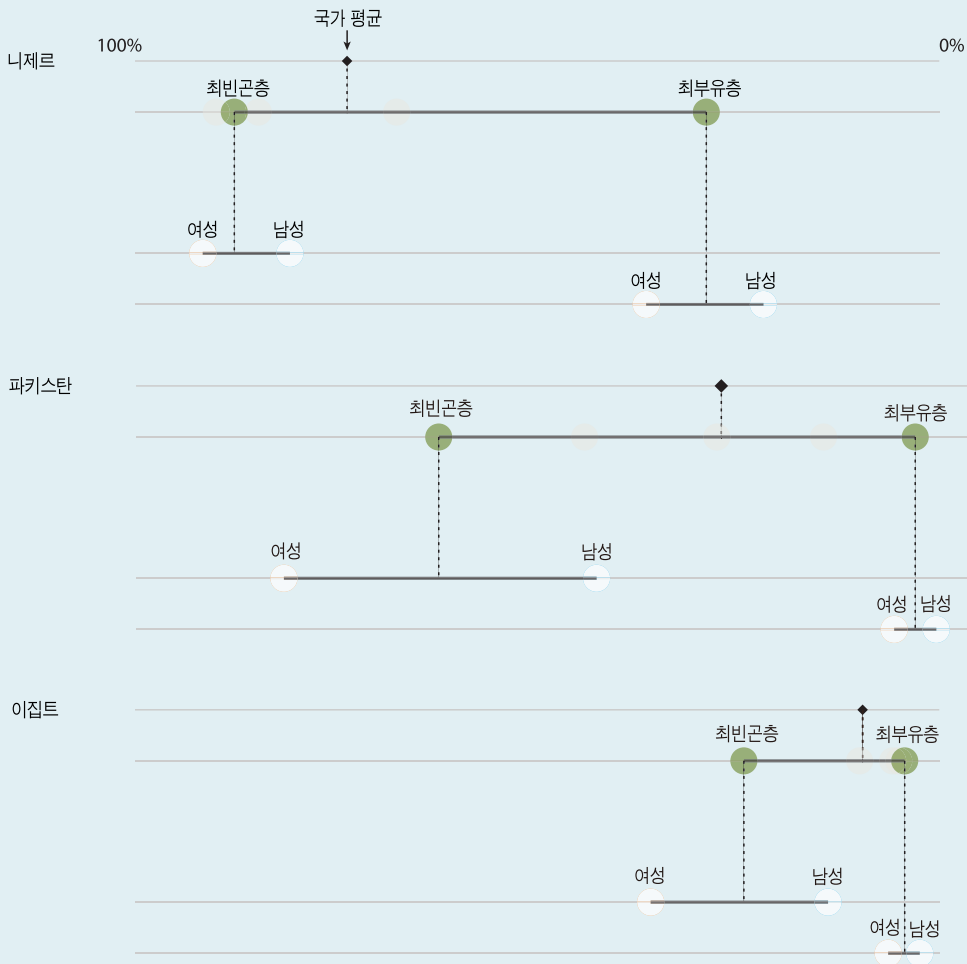
EFA를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3개의 지역 - 중동,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의 자료는 거의 모든 국가에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웹사이트에서 점을 클릭하면 빈부 격차율이 나타난다. 가장 빈부격차가 큰 니제르에서는, 빈곤층 청년들 중 88%가 2년 이하의 교육을 받은 반면 부유층 청년들은 29%에 불과했다. 이것은 그들이 매우 극심한 교육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가장 밑에 있는 요르단이 가장 적은 빈부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빈부에 상관없이, 17세에서 22세 청년들 중 1%만이 극심한 교육 빈곤의 영향을 받는다.

# 데이터베이스(WIDE)

웹사이트 방문자는 국가 내 집단을 다양한 교육 지표와 부, 성, 소수민족, 종교와 지역과 같은 불평등과 연관된 요소별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다. 이용자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지도, 차트와 표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고, 출력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Interactive Things가 디자인하였다.

## 빈부 격차는 양성 격차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니제르, 파키스탄, 이집트의 소득수준과 성별 2년 이하 교육을 받은 17세에서 22세 인구 (%)



WIDE 웹사이트 이용자는 선택한 국가 내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표가 겹치는 양상을 자세히 볼 수 있다. 니제르에서는 빈부격차가 이미 크다. 하지만 이것을 성별로 보면 그 격차가 더 커진다. 최빈곤층의 젊은 여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들 중 92%가 2년 이하의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반면 그 비율이 최부유층 젊은 남성 중에서는 22%밖에 되지 않는다. 파키스탄에서는 최빈곤층의 큰 성별 격차로 인해 젊은 여성 열 명 중 여덟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 젊은 남성 열 명 중에서는 다섯 명 이하이다. 이 문제는 이집트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다지 심각하지 않지만, 양성 격차는 크다. 빈곤층 젊은 여성의 36%가 극심한 교육 빈곤을 겪고 있는 반면 최부유층 젊은 남성들은 2%밖에 되지 않는다.

# EFA에 대한 자원: 과제와 가능성



빈곤국가 중에서는 63%가 국가의 교육예산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켰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EFA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 분야 예산을 계속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교 밖 아동의 수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이 공여자들의 기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조 액수 증가 자체가 EFA 목표 달성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적은 액수의 재정 지원은 확실한 위험이 된다. 공여국들 간의 협력으로 인한 새로운 노력이 시급하다. 이와 동시에, 재정 부족을 막고 원조금의 지출 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잠정적인 새로운 지원 기관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더 많은 재정 지원의 필요성

다카르 선언 이후 각 정부의 교육에 대한 총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교육 예산 증가가 가장 컸던 국가들은 저소득 국가이다. 이들은 1999년 이후 매년 평균 7.2%로 교육 예산을 증가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연 증가율은 5%였다. 비교될 만한 데이터가 있는 저소득과 중소득 국가에서는 지난 10년간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63% 증가시켰다.

지난 10년간 EFA에 대한 진전을 가속화시켰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육에 대한 예산을 크게 증가시켰거나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정부가 교육예산을 세 배로 증가시켰고, 초등학교 등록률은 두 배로 증가했다. 세네갈에서는 교육 예산을 국민총생산(GNP)의 3.2%에서 5.7%로의 증가하여 초등학교 등록률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고 성 격차도 없어졌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는 EFA 달성을 위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기니,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는 국민총생산의 3% 이하만을 교육 예산으로 분배하여 낮은 수준의 교육 예산을 유지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두 번째로 많은 학교 밖 아이들 수 510만 명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국민총생산의 2.6%에서 2.3%로 교육 예산을 줄였다.

최근 식량과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것이 교육 재정의 악화로 이어지는 현상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물론 이들의 장

기 영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 데이터가 있는 저소득, 중·저소득 국가의 3분의 2가 재정 위기 중에도 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그러나 EFA 목표 달성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먼 차드와 니제르 같은 국가에서는 2009년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으로 인해 2010년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 보고서의 새로운 분석은 원조 받은 몇몇 최빈국의 혜택 범위를 보여준다.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 아홉 개 국가에서는 정부 교육 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원조가 차지한다(표 8). 예를 들어 모잠비크에서는 학교 밖 아동 수가 1999년에 160만 명에서 2010년 50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총 교육 예산의 42%가 원조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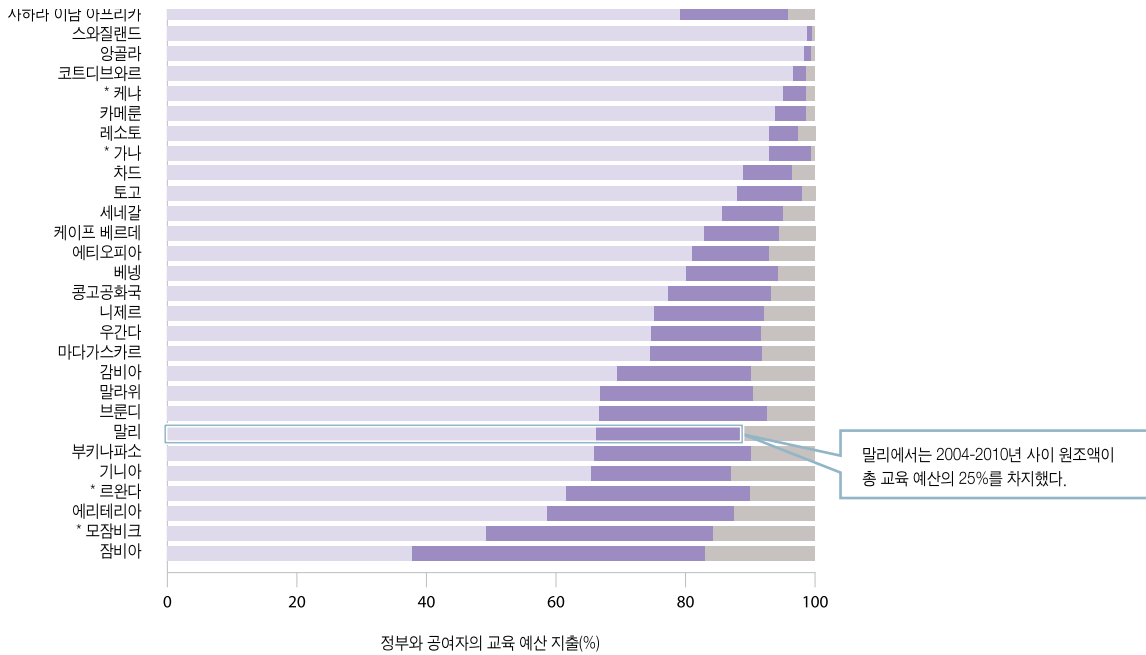
## 교육원조는 최고 수준에 다다랐는가

2002년 이후 교육에 대한 원조가 가장 증가한 시기는 2009년이였다. 이해 원조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세계은행과 IMF가 취약 국가가 재정위기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약정금액을 조기 지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에 원조금은 135억으로 유지되었다. 이 중 58억은 초등교육 분야에 해당된다(표 9). 이것은 2002~2003년 수준의 두 배 가까이 되지만 저소득 국가의 초등교육으로 분배된 것은 19억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 국가들이 직면하는 160억 재정 부족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09년과 2010년 사이의 원조금 증가는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증가가 있었던 16개의 저소득 국가에 대한 추가 지원 금액의 55%를 받았다. 이와 반대로, 19개의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은 감소했다.

지난 10년간의 원조 액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여자들은 2005년 글렌이글스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원조를 500억 증가한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약속한 금액 증가의 반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수원국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교육 예산을 분배할 것이라 가정하였을 때 이러한 약속 실패는 교육 분야 원조금액의 연 19억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초등교육에 대한 현 원조금액의 3분의

〈표 8〉 교육 원조는 빈곤국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선정된 지역과 저소득, 혹은 중·저소득 국가 평균 교육 자체예산과 원조, 2004-2010



비고: \*은 각 국가 예산의 원조 비율이 해당 국가 문서에서 추정되었음을 표시함. 다른 국가들은 평균 60% 원조로 가정됨.  
출처: UNESCO (2012b).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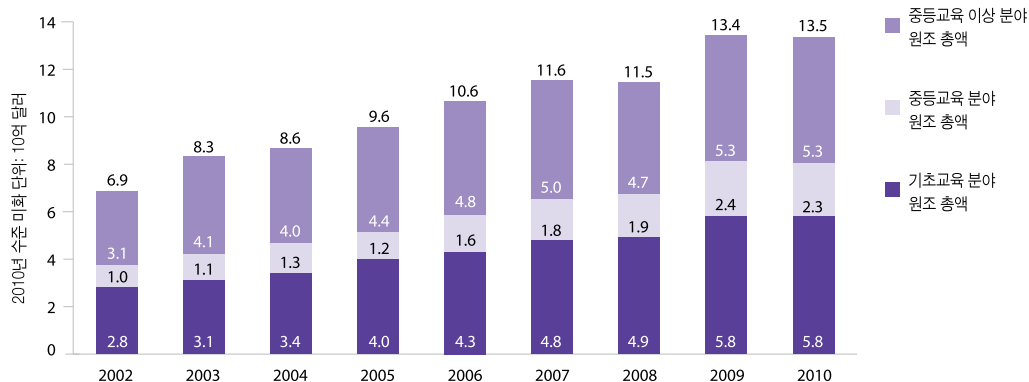
더 우려되는 점은, 2015년까지의 원조 예상치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2011년에 실질 총 원조액이 3% 가량 감소했다. 이것은 1997년 이후 처음있는 원조액의 감소이다. 선진국의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전체 예산 삭감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원조예산 또한 삭감 대상이 되었다. 2010~2011년 사이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3개국 중 14개국에서 국가 소득 대비 원조액을 감소시켰다.

몇몇 주요 공여자들은 전체 원조 예산을 줄일 뿐 아니라 교육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원조는 전체 원조의 감소 수준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초교육에 가장 많이 기부한 세 공여국 중 하나인 네덜란드는, 교육을 더 이상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교육 원조액을 60%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몇몇 최빈국에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암시한다. 네덜란드는 예를 들어 부르키나 파소의 원조를 중단할 것이며, 동시

9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원조가 교육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표 9〉 2010년에 교육 원조는 변동이 없었다

원조 총액의 교육분야로의 분배, 2002-2010



출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012b).

에 4개의 다른 공여국들도 이 국가의 교육 원조를 중단할 예정임을 밝혔다.

브라질, 중국, 인도와 같은 새로운 공여국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원조 규모는 아직 크지 않고, 저소득 국가의 기초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도 않다.

### 원조의 효율적인 지출

교육 분야 원조 액수는 전체 이야기의 단지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다. 원조액이 효과적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5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설정한 원조 효과성의 13가지 목표 중에서 단 한개 만이 목표한 2010년 마감연도까지 달성되었다.

교육 분야는 원조 효과성 아젠다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분야다. 예를 들어 케냐, 모잠비크, 르완다와 우간다에서는 큰 규모의 원조액이 정부 계획과 결합되어 쓰였고, 그 결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장 높은 초등학교 입학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빈곤국가에서 원조가 더 많이,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원조 효과성을 위한 잠재적 수단 중 하나인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GP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과거 EFA 속진사업)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GPE는 교육 원조의 유일한 세계적인 공동기금 제도이지만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150만 달러만이 GPE를 통해 지원되었다. 이것은 저소득과 중·저소득 국가가 기초교육 분야로 받는 총 원조액의 6%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 또한 이는 보건 분야와도 비교된다. GPE는 교육 분야 원조의 규모를 늘리고, 각국 정부와 원조 공여자 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설립되었다. 더 나은 원조 협력체제와 효과성 증대를 위한 잠재성을 가진 GPE는 2015년 이후 재정적 체제 설립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가까운 미래에 더 자세히 모니터링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넓은 차원에서 공여자들은 예산 감축과 책무성 증대 압박으로 인해 그들의 원조 투자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결과에 근거한 원조는 수원국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교육 정책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에티오피아 정부에게 중등학교 시험을 한 명이 추가적으로 통과할 때마다 정부에게 보상을 주는 상호보완적인 원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르는 위험이 있다. 특히 결과를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빈곤국가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2008년에 콩고 민주공화국은 자원 수입에서 4억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 금액은 720만 명의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비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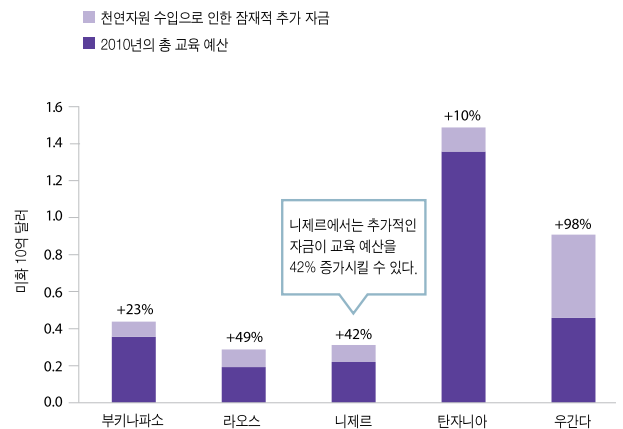
### '자원의 저주'를 교육의 촉복으로 전환하기

발전이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역설 중 하나는 '자원의 저주'이다. 즉, 석유와 미네랄처럼 비재생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보다 더 느린 경제적인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들 중 많은 국가가 EFA 목표와 다른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자원이 미래 세대를 위해 쓰인다면 이러한 저주를 피할 수 있다.

최대 석유와 가스 수출국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는 동시에 가장 많은 학교 밖 아동 수를 보여주고 있다. 차드는 새로 찾은 자원으로 인한 수입을 교육과 같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쓰지 않고 군사 목적으로 지출했다.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에서는 천연 자원을 위한 경쟁이 무장 갈등의 핵심원인이었다. 천연 자원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을 잘못 관리하면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2008년에 4억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손실이 있었고, 이것은 이 국가의 교육 전체 예산보다 더 큰 액수이었다. 이 금액은 720만 명의 어린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는 비용이다.

천연 자원의 수입이 정부로 넘겨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면 많은 국가가 좀 더 수월하게 EFA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표 10) 천연 자원으로 인한 수입은 교육 예산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2010년 총 교육 예산에 비교한 천연 자원 수입을 최대한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추가 자금(선정된 국가별 미화 10억 달러 단위로 표기)



비고: 천연 자원으로 인한 수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음: (i) 천연 자원 수출로 인한 수입 비율의 증가가 미네랄에는 30%, 그리고 석유는 75%이고 (ii) 이러한 추가적인 수입의 20%가 교육으로 분배됨.

출처: UIS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EFA 세계 현황 보고서', 작성팀의 분석과 IMF Article IV reviews.

보츠와나는 이 국가를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의 최부유국 중 하나로 만들어준 다이아몬드 자원으로 인해 지난 몇 십년간 교육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초등교육 보편화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중등학교 총등록률이 82%로 증가했다. 이 수치는 아프리카 대륙 평균의 두 배에 해당된다. 가나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국가의 효과적인 재정 활용을 확실히 할 것을 정치적 합의로 이루었다.

이 보고서를 위한 분석에서 이미 자원이 풍부하거나 석유, 가스, 미네랄을 수출하기 시작하려는 열일곱 개의 국가가 교육 예산을 증가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비재생 천연 자원으로 얻은 수입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중 추가 자원의 20%를 교육에 투자한다면 교육 예산이 연 50억 달러 이상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액수는 이 국가들의 1200만 명의 학교 밖 아동의 86%를, 그리고 900만 명 학교 밖 청소년들의 42%를 추가로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런 방법으로 가나, 기니, 라오스, 말라위, 우간다, 잠비아와 같은 몇몇 국가는 공여자들의 추가적인 원조 없이 초등교육 보편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천연자원으로 인한 수입의 공평하고 생산적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교육 지지자들은 정부가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평한 세금제도를 유지하는 수단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천연자원 수입의 활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논쟁에 개입해야 하며, 경제의 다각화를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자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적 투자의 한 사례로 교육이 꼽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민간단체 기여의 잠재적 가능성

EFA 실천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나, 국제 원조의 미래는 어두운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재정적 자원의 잠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추정된 통계에 따르면 개도국에 기부된 민

간 부문으로부터의 총 원조가 2008~2010년 사이 평균 500억 이상이었다. 이것은 1200억 가량 되는 공적 원조에 비교될 만한 규모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건 분야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 그 기간동안 미국 재단이 기부한 총 보조금 중에서 53%가 보건 분야에 쓰였고 8%만이 교육 분야에 분배되었다.

이 보고서의 공개된 자료에 근거한 새로운 분석에 의하면, 민간 재단과 기업이 매년 6억8300만 달러 정도를 개도국의 교육 분야에 기부하고 있고 이것은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 교육 원조의 5%에 해당된다.

이중 20% 정도가 재단이 기부한 것이다. 재단의 목적은 전형적인 공여자들의 목적에 가장 근접하다. 평가된 기관 중 다섯 개의 재단만이 매년 5백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였고, 이것은 룩셈부르크나 뉴질랜드와 같은 가장 규모가 작은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이 교육에 기여하는 규모와 동일한 수준이다(표 11).

이와 비슷하게, 기업 기부의 71%가 다섯 개의 회사에서 온 것이고, 각 회사가 연 2천만 달러 이상 기부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교육에 투자한 회사 중 대부분은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에너지 관련 회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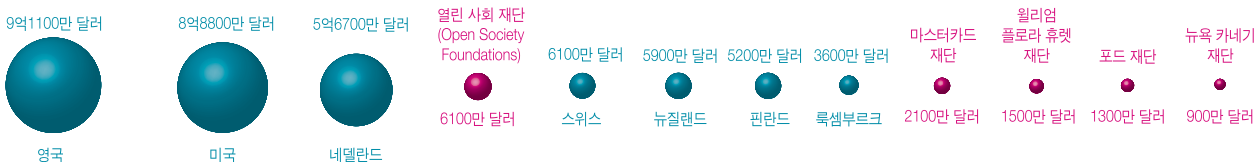
이 기부 금액 중 매우 작은 부분만이 EFA 목표나 EFA 목표를 달성성이 미약한 국가에 쓰이고 있다. 기업 기부 활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고등교육이다. 특히 ICT 산업 분야 기업들은 그들이 전략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브라질, 인도와 중국과 같은 중소득 국가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프로그램은 단기적이고 분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재단과 기업들이 영유아 보건과 교육, 초등교육, 청년의 기술 습득과 학업성취도 측정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의 성공은 측정하기 힘들다. 민간단체들은 그들의 프로그램의 효

민간단체의 기부가 교육 원조의 5%를 차지한다.

〈표 11〉 가장 큰 재단으로부터의 교육 지원이 공여국들의 원조 규모에 비교하면 매우 적어 보인다

다섯 개의 가장 큰 재단의 교육 분야 기부액과 선정된 정부 공여국의 총 교육원조액, 2009~2010년 혹은 자료가 있는 가장 최근 연도



비고: 휴렛 팩커드 재단의 연 평균 1500만 달러의 3분의 2 정도는 빌게이츠 재단에서 온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개도국의 교육 분야 원조는 재단의 총금액으로 추정된 액수이다.

출처: 부록 원조에 대한 표 2; 니욕 카네기 재단(2011); 포드 재단(2011); 마스터카드 재단(2010); William & Flora Hewlett 재단(2010)

민간 분야는 EFA 투자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과성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절한 효과성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다소 과장된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몇몇 기업들은 EFA 참여를 통해 그들의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물론 교육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의 프로그램들은 원조 공여국과 같은 수준에서 꼼꼼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중요한 첫 단계로, EFA에 기여하려는 모든 민간단체는 분배된 기부금액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그들의 기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로 인해 기업의 이해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동시에 EFA 재정을 메우기 위한 원조 금액 규모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의 기여는 정부와의 협력과 수원국의 필요와 일치했을 때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을 위한 세계 기업 연합(Global Business Coalition for Education)은 EFA 목표 체제에 맞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망하다.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교육 분야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기금의 일부를 공동출자를 통해 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과 같은 글로벌 보건 기금(Global health funds)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와 흡사한 교육 분

야의 메커니즘인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GPE)은 아직 이와 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GPE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얻고 있다. 그러나 GPE 추가예산회의에서 약속된 재단과 기업들의 기부금은 공동 출자된 기금제도를 통해 분재되지 않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 극복 방안

교육분야에 대한 증폭적인 지원이 이어졌으며 이는 확실히 놀랄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은 예산 증액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 EFA 목표 달성과 가장 거리가 먼 최빈국에 대한 원조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

원조의 감소는 교육 재정의 빈틈을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브라질, 중국, 인도와 같은 새로운 공여국들의 원조가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이 국가들의 원조는 가장 원조가 필요한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원조 공여자를 찾아야 한다. 천연자원 수입과 민간단체가 두 가지 다른 지원 원천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여가 효과적이라면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이들의 활동이 EFA 목표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Chris Stowers/PANOS





## 2장. 청년과 기술: 배움에서 일터로



나에게 기술이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젊은 여성, 에티오피아 -

청년들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혀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전 세계 정부는 장기적인 재정 위기와 지식기반 경제가 가져오는 도전에 대처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국가가 성장하고 번영하려면 기술을 가진 노동력 발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청년들은 사는 지역과 배경에 상관없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알맞은 직장에 취직하고 성공하기 위해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청소년의 기술 발전의 필요성은 '모든 청소년과 어른들의 학습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EFA 세 번째 목표에서 강조되고 있다. 목표달성의 애매한 측정문제로 인해 이 목표는 정부, 공여자, 교육 분야 전문가들 혹은 민간분야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목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청년들의 인구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 몇몇 지역에서는 젊은 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개도국에서만 15~24세 사이 인구가 2010년에 10억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데 비해 직업 창출의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5~24세 사이의 청년 여덟 명 중 한 명이 실직된 상태에 있다. 청년들은 성인보다 실직인 상태일 확률이 세 배나 더 많다. 젊은 층의 실업률이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므로, 많은 젊은이들은 향후 몇 년 간은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청년 실업률은 아젠다에서 순위가 더 올라가고 있고, 이는 정책적으로 민간 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보장받고 있지만, 기초 문해력과 수리 능력이 부족한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의 필요는 여전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도시의 비정규직에 종사하거나, 혹은 땅에 대한 접근이 최소한으

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최저생활비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가 집회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든 기술 발전 전략의 핵심에는 이들에게 낮은 수준의 기술, 낮은 임금에서 탈출하기 위한 기회 제공이 있어야 한다.

기술교육에 대한 기회는 자주 불평등하게 주어진다. 이로 인해 빈곤층, 여성 혹은 소외된 계층의 일원의 불리함이 지속되고 더 악화되고 있다. 빈곤과 소외속에서 자란 청년들은 교육을 적게 받거나 학교에서 중퇴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알맞은 직장을 갖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적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더 소외될 위험에 처해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보고서에는 청년들이 더 나은 직장, 이룰데면 음식을 사고 남은 돈을 갖기에 충분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직장, 빈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직장을 찾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발전 기회 확대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청년이 필요한 세 가지 주요 기술(skill)을 내세우고 있다. 기초 기술, 전용성 기술, 직업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맥락도 함께 살펴본다.

**기초 기술:** 가장 기본적이고 토대가 되는 기술은 생계를 이어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문해력과 수리력이다. 이러한 기술은 평생교육과 훈련을 받는데 필수적인 기술이기도 하다. 또한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전환 가능한 기술과 직업기술을 습득하는 데에도 필요한 기술이다.

**전용성 기술(Transferable skills):** 전용성 기술은 문제해결 기술, 아이디어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 창의성, 리더십과 경각심을 보여주는 기술, 그리고 기업자적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사람들이 다양한 업무환경에 적응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다.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8명 중 1명이 실직상태에 있다.

**직업기술:** 많은 직업이 채소를 기르는 것에서부터 재봉틀을 이용하는 법, 벽돌을 깔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기술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이 보고서에 그려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길'이 기술발전의 필요에 대한 이해와 정책이 어느 분야를 목표로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공식적인 일반교육과 이러한 교육의 확장, 그리고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세 가지 종류의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공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술 훈련 기회를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은 기초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기회에서 견습과 농업 기술 훈련을 포함한 일터에서의 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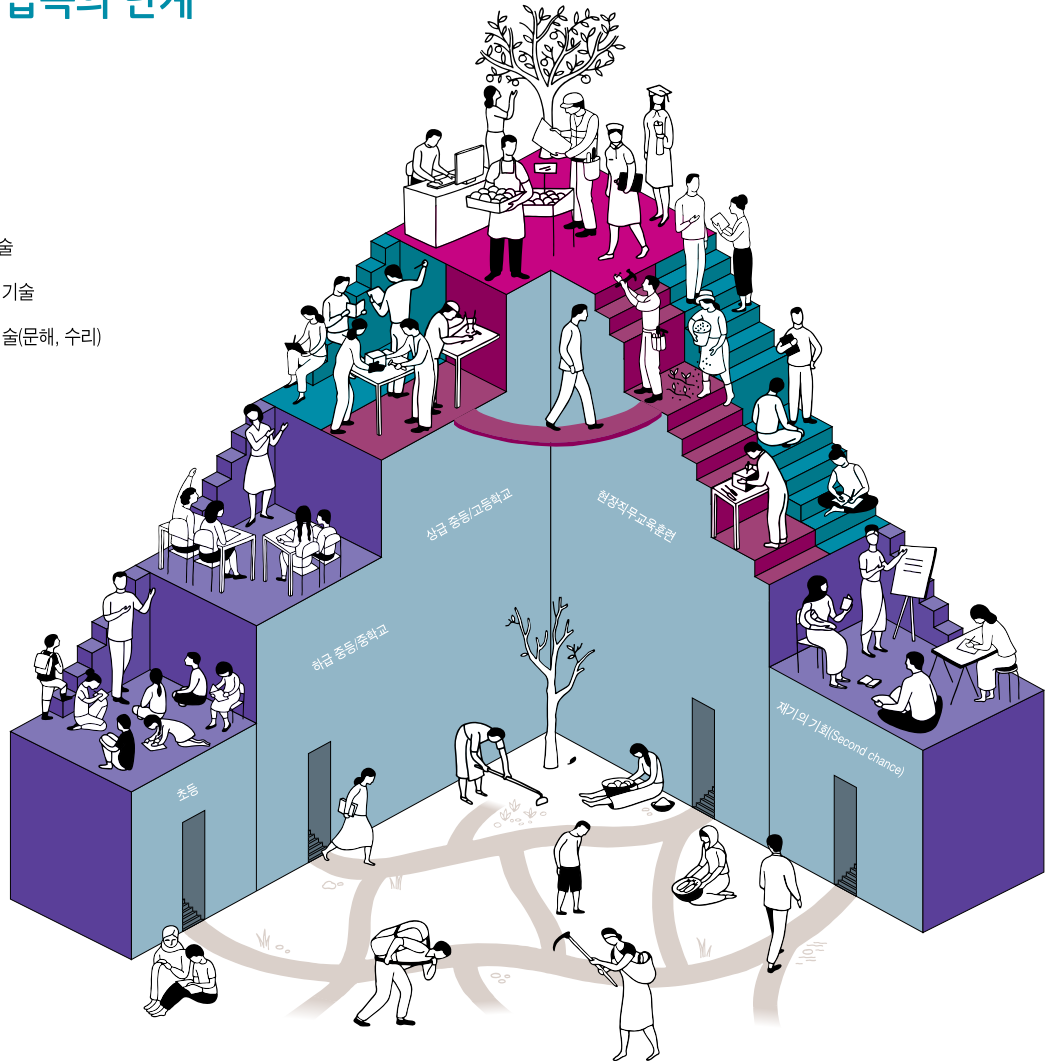
### 청년, 기술, 그리고 직업 - 더 튼튼한 토대 만들기

많은 국가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현재 청년 인구가 가장 많다. 만약 국가에서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 청년들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러한 역할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교육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은 특히 빈곤한 가정의 젊은 여성과 같은 젊은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불리한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다.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청년들의 취직 기회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와 같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실업 상태이거나 저임금의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 기술습득의 단계

- 직업기술
- 전문성 기술
- 기초 기술(문해, 수리)



## 청소년 인구 중 상당수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년 실업 청년의 수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의 수 또한 많아지고 있다. 실업 청년의 수는 증가하는데 일자리는 여전히 늘어나지 않고 있다.

- 젊은 남성, 에티오피아 -

전 세계 인구 여섯 명 중 한 명은 15~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이다. 그들은 집중적으로 최빈국에 살고 있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청소년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인 3분의 2가 25세 이하이고 이것은 프랑스, 일본,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국의 인구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청년층과 비교되는 수치이다. 2030년까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청년 인구수는 1980년의 인구수의 3.5배가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청년 인구가 중동지역과 서남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다. 이 중 절반은 25세 이하이다.

이렇게 중동국가, 서남아시아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늘어나는 청년 인구수를 감당하고 실업률을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만 2020년까지 5700만 개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들을 실직 혹은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과 능력 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많은 수의 청년이 일터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은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심각한 불평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의 기초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사회적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나는 계속 공부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취직을 하지도 못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까?

- 젊은 남성, 멕시코 -

취직이 되기 위해서 모든 청년들은 최소 중학교까지의 교육을 받아 기초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59개 국가 중 30개 국가에서는 15~19세 사이 청소년들의 최소 절반정도가 기초 능력이 부족하다. 이는 데이터에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30개 중 23개국의 사례이기도 하다(표 12).

기초 능력을 습득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부르키나 파소, 말리와 니제르에서는, 다섯 명의 청소년 중 세 명이 15~19세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학교에 다닐 기회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적다. 많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학교

에 등록하게 된 학생들은 종종 초등학교를 마치기 전에 중퇴한다. 르완다에서는 대부분이 초등학교를 다녀 본 적이 있지만, 거의 절반정도가 초등학교를 마치기 전에 중퇴한다.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15~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초등학교에 있다. 이들의 나이는 최소 중학교를 마쳐야 했을 나이이다. 예를 들어 이 나이 대에 아직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간다의 35% 청소년들은, 이 이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와 시리아와 같은 국가처럼 15~19세 사이의 청소년들 중 절반이 하급중등교육을 받은 국가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단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거나, 중등학교를 마치기 전에 중퇴했거나 혹은 아직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빈곤은 교육과 기술 습득에 있어 큰 장애물이다. 이집트에서는 빈곤층 다섯 명 중 한 명이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반면 부유층 자녀들의 대부분은 삼급 중등학교(고등학교)까지 다닌다.

빈곤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대신 일하고 있다. 2008년에 추정된 전 세계 5~17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중 1억1500만 명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기술을 습득에 필요한 능력 없이 그들은 불안정하고 저임금을 받는 직업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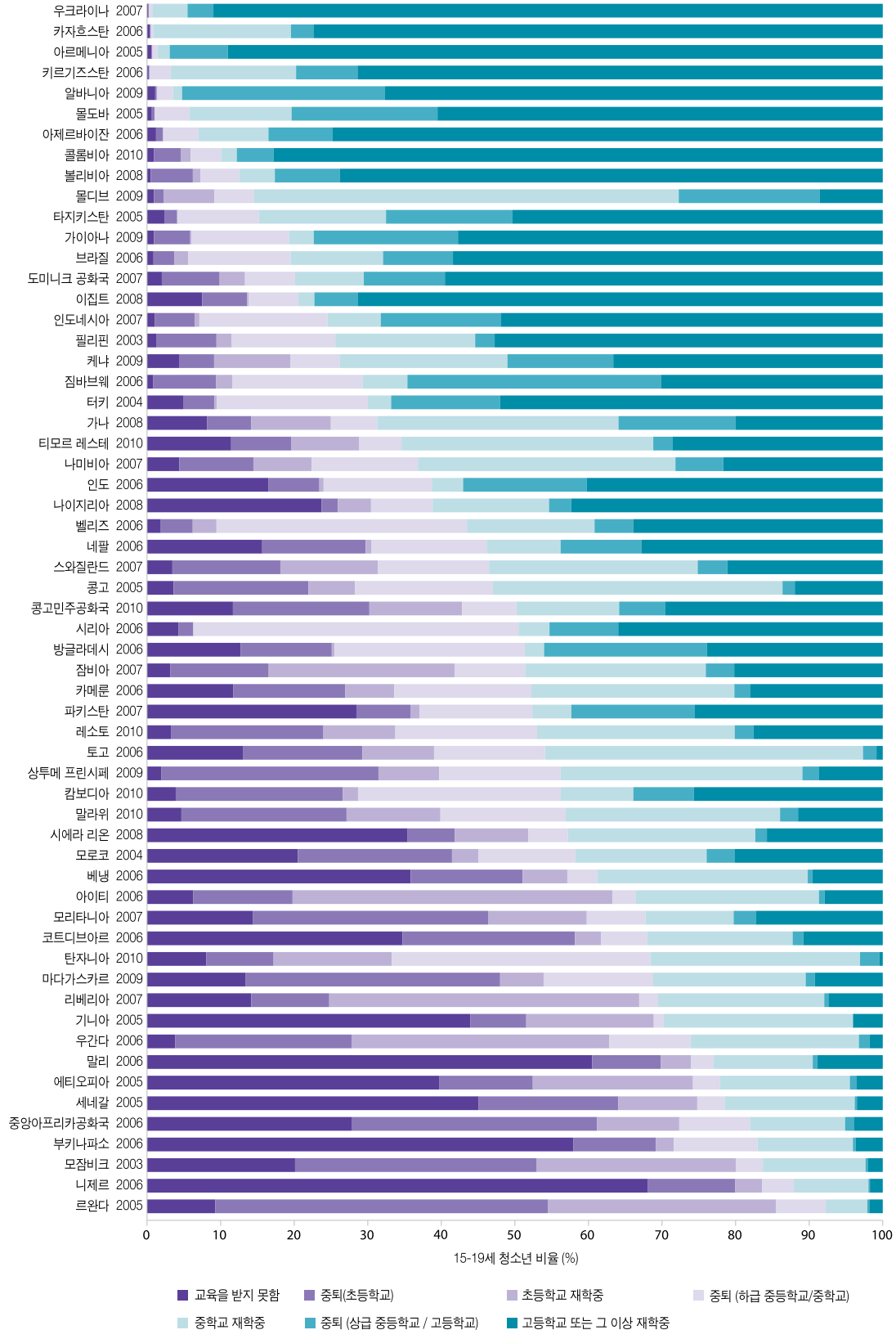
소외계층 자녀들은 자랄수록 가정 소득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아이들이 자랄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콜롬비아와 베트남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부유층 자녀들의 대부분이 중학교까지 다니는데 비해 베트남의 경우 빈곤층 자녀의 3분의 2만이, 콜롬비아는 빈곤층의 절반정도만이 중학교까지 다니고 있다.

대부분의 빈곤국가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기초 능력을 습득할 가능성이 더 적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부유층에서 남녀 격차가 더 크고, 빈곤층의 남아 여아 모두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부유층 남아의 60% 가량이 중학교까지 다니고 있는데 비해 여아는 40%만이 다니고 있다. 빈곤층 자녀 중에서는 5%만이 중학교까지 다니고 있으나, 남아 대 여아의 비율은 같다.

중소득 국가에서는 이와 반대이다. 빈곤층에서 남녀 격차가 가장 크고 부유층 자녀는 성별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자녀들이 기초 기술을 습득한다. 터키에서는 부유층에서 남녀 격차가 있고 빈곤층에서는 64%의 남아들이 기초 기술을 습득한데 비해 여아는 30%이다.

니제르에서는 15-19세 사이 청소년 5명중 3명이 학교에 단 한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

〈표 12〉 많은 젊은이들이 기초 기술을 습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국가별 15-19세 사이 청소년들의 교육 현황, 자료가 수집된 가장 최근 연도 기준



출처: UIS (2012a).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그들의 교육 기회를 결정짓기도 한다. 남녀간 격차 또한 농촌/도시 혹은 지역적인 요소에 의해 커지기도 한다. 농촌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은 기본적인 능력을 습득할 기회가 가장 적다. 파키스탄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진급한 15~19세의 청소년들 비율이 도시가 농촌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다.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절반이 단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데 비해 도시에서는 14% 남성만이 이에 해당된다. 인도 케랄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기초 능력을 습득하였지만 비하르에서는 45%만이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중 57%는 남자아이고, 37%는 여자아이이다.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은 부분적으로 빈곤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정부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케냐의 슬럼가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기초 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사는 곳에 학교가 없어서이다. 이 사실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계층이나, 성별 혹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인해 구직 시 거부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자원을 재분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청년들에게 기초 문해 및 수리능력 습득을 위해 필요한 '재기의 기회'(second chance)

현재 나의 교육과 기술 수준은 부족한 편이지만 만약 내가 나중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나는 기초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젊은 여성, 에티오피아 -

기초 기술이 없는 모든 청소년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따르는 장애물의 규모는 많은 정부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올해 『EFA 세계 현황 보고서』는 123개의 저·중소득 국가의 15~24세 사이 청소년 약 2억 명이 초등학교를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5명의 청소년 중 한 명에 해당된다. 이 중 58%는 여성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세 명 중 한 명이, 중동에서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기초 기술이 부족하다. 이 2억 명의 인구 중 절반은 5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인도,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이다. 기초 기술이 부족한 인구의 대부분은 서남아시아(9100만 명)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5700만 명)에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NGO가 제공하는 상당수의 혁신적인 '재기의 기회(second chance)'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는 표면적이다. 7개국에서 실행된 몇몇 큰 프로그램의 평가에서는 프로그램에 210만 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7개국의 15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전히 기초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초등교육을 이수하고 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이러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기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 전용성 기술: 직업세계를 위한 준비

어떻게 보면 학교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과 직업 환경의 구조에 대해 가르쳐 준다.

- 젊은 여성, 영국 -

고용주들은 취직 원서를 내는 젊은이들이 최소한 튼튼한 기초 기술을 습득했고, 문제해결을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단순히 정해진 일상을 따르는 것보다 동료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전용성 기술'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종종 새롭게 고용된 신입들이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선진국의 연구 결과에서는 학생을 학교에 오래 있게 하면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고등학교를 마치기 전에 중퇴하는 학생들의 45%가 이러한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은 20%만이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교육은 또한 자신감과 학습 동기를 강화시키기도 한다. 빈곤한 국가의 비공식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전환 가능한 능력은 정식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불리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의 NGO인 아칸샤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뭄바이 슬럼가의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긍정적이었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학교 성적이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 학교에서 일터로의 어려운 전환

직업을 구할 때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지를 물어 본다. 하지만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 젊은 여성, 멕시코 -

123개의 중저소득 국가 청소년 2억명이 재기의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



© G. M. B. Akash/Pan

학교를 졸업하고 일터로 나아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움에 직면한다. 일자리 부족과 불안정한 직장, 저임금 직장과 같은 낮은 질의 직장은 청소년들의 구직 시 겪는 불리함을 반영한다. 빈곤, 성별, 장애 등 교육에서의 불리함을 겪게 만드는 요소 또한 종종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과 연관되어 있다. 불평등한 교육, 사회적 가치,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유발한다.

특히 선진국의 몇몇 젊은이들은 학교 졸업 후에 장기간의 실업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 2011년에 전 세계 청소년의 13%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7,500만 명, 2007년 경제 위기 이전 수준보다 4백만 명 더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다. 청소년의 실업률은 성인 실업률보다 평균적으로 두 배 혹은 세 배 더 높다. 이집트의 청년 실업률은 여섯 배 더 많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5배, 그리고 이탈리아는 네 배 더 많다.

젊은 사람들은 직장 세계로의 첫 단계를 위해 중장년층 보다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미취업 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많은 국가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장애물은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경제 불황 이전인 2000년대 중반에도 이탈리아의 15~29세 사이 청년들의 17%가 교육과정을 다 마친지 5년 후에도 미취업 상태에 있었다.

경제 불황이 시작된 이후에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더 줄어들었고,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2011년의 일자리 수는 경제 위기 이전의 일자리 수보다 전 세계적으로 2900만 개 더 적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실업률은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의 실업률이 더 컸다.

그러나 실업률 수치는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일부일 뿐이다. 실업률은 몇몇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구직을 포기한다는 사실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 상태도 아닌, 취직이 된 상태도 아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 사람들은 그들의 비경제활동이 그들 스스로의 동기보다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만약 이렇게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의욕을 잃어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과 포함한다면 청년 실업률은 대폭 증가할 것이다. 한 예로 카메룬에서는 그 수치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인구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초등학교만 마치고 교육과정을 그만둔 젊은 사람들의 남녀 격차는 종종 매우 크다. 요르단에는 초등학교만 받은 여성들의 80%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대한 남성의 비율은 20%였다.

젊은 여성들은 또한 정책가들이 문제로 인식하기 어려운 집안일이나 비공식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9개국에서의 최근 노동인력 설문조사에서는 9개국 모두 젊은 층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었고, 그 격차는 보통 매우 컸다. 구직을 하는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더 적고, 이는 주로 집안일의 불평등한 분배와 구직 과정에서의 차별로 인한 것이다.

구직 여성들은 보통 남성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6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문해력과 수리력이 낮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더 크다. 하지만 교육은 여성의 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높은 문해력을 가진 여성이 비문해 여성보다 95%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문해와 비문해 남성의 임금 차이는 33% 밖에 되지 않았다.

장애인 청소년들은 교육과 직업에 접근하는 데 있어 특히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 케냐의 장애인 청소년들 중 극히 소수가 초등학교 이상을 받는다. 그들은 낮은 수준의 교육, 근무환경에서의 부적응과 가족과 고용주들로부터의 제한된 기대치로 인해 직장을 구할 때 많은 제약이 있다.

많은 청년들은 오랫동안 미취직 상태로 머무는 대신 불안정하고 적은 월급을 받고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질 낮은 일자리를 얻게 된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것은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얻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에게 이러한 낮은 질의 직업은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이다.

경제 불황 이전에 비해 2011년에 29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1억5200만 명의 청년들, 즉 모든 젊은 노동자의 28%가 하루에 1.15 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부르키나 파소, 캄보디아,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빈곤선 이하로 일하는 것이 아예 일하지 않는 것보다 더 보편적인 현상이다.

청소년·청년들은 성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 부르키나 파소의 와가두구에서는 성인이 청년보다 평균 2.5배가량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 청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선 이하로 버는 것은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불충분하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교육을 적게 받고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얻을 위험이 가장 많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는 고임금 직장을 얻는데 낮은 교육수준 외 다른 장애물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낮은 교육수준 자체가 청년들이 저임금 직장을 얻는 주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캄보디아의 경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 91%가 빈곤선 이하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고 이에 비해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 중 해당되는 비율은 67% 이하이다.

빈곤국가의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실업상태보다 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카메룬의 농촌 지역에서는 실업률은 1%에 불과하다. 농업은 수많은 낮은 교육 수준을 받은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많은 경우 월급을 매우 적게 받고 있다. 교육을 받지 못한 농촌 청소년의 3분의 2는 하루 1.25 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그 중 농촌 지역의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의 경우는 최하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중등교육이 젊은 사람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는 남녀 차이가 있다. 네팔에는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젊은 남성이 교육을 잘 받은 젊은 여성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들 중 40% 이상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지만 중등교육을 마친 젊은 여성의 30% 이하만이 적정 수준 임금을 받고 있다.

## 미래의 번영을 위한 교육 투자

교육 부족으로 인해 우리는 직업을 찾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우리에게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 젊은 남성, 인도-

기술 교육은 실업률,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고 성장을 도모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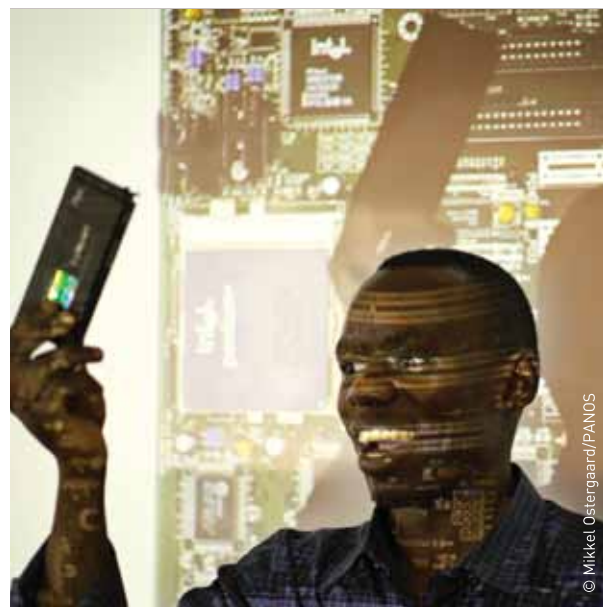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현명한 투자이기도 하다. 교육에 투자된 매 1달러가 경제 성장의 10~15 달러에 해당된다. 만약 46개 최빈국의 15세 청소년 수의 75%가 추가로 더 OECD가 정한 수학 최저 점수 이상을 받는다면, 경제성장은 기존 수준에서 2.1% 더 증가할 것이고 1억4백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빈곤국가에서 부유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성장은 부분적으로 기술 능력 개발을 강조한 계획으로 인해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의 능력과 기술을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그 이후에는 중등교육 달성을 향상시켰다. 그 이후로는 기술 훈련 위주의 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요약하자면, 국가가 기술 공급을 수요에 맞추는데 주요 역할을 한 것이다.

수십 년간의 경제침체 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이 지역 국가들 중 3분의 1 이상이 최소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그중 일부는 2050년까지 중소득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다른 '동아시아의 호랑이 경제'의 사례는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건강한 경제정책과 정부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 기술훈련에 대한 투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정부의 기술 능력 개발 경시와 소외계층 청년이 받는 타격

능력 개발의 투자 가치가 명백한 증거를 통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모든 청년들의 4분의 1 이상이 하루 1.25 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전세계 청소년이  
중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약 80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 분야는 아직도 우선순위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대부분 저소득 혹은 중저소득 국가였는데, 이 중 46개국을 분석한 결과, 직업 기술 교육 및 훈련 혹은 폭넓은 능력 개발 전략 형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있는 국가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한 많은 국가의 계획은 단편적이고, 조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 시장 수요 및 국가 발전 우선순위와 동떨어져 있다. 기술 능력 개발을 담당하는 곳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책무성도 결여되어 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많은 계획의 전략 부족은 상당수의 발전 전략이 근시안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46개국 중에서 절반 이하의 국가만이 비공식 분야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기술 능력 개발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국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의 경우 2025년까지 중소득 국가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능력 개발을 그들의 야심차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 계획의 초석으로 다루고 있다. 그들은 2020년까지 중등교육 입학률의 보편화를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농업과 산업 분야의 기술 능력 개발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외 계층 청소년이 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 또한 강조하고 있다.

전략을 세운 국가의 4분의 1정도만이 초등학교 중퇴자 혹은 훈련 도중 그만둔 청소년들의 재취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에라리온의 경우 기업가적 능력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한 청소년 취업 전략을 세웠다. 15~19세 사이의 청소년 중 57% 정도가 중학교 이수 전에 중퇴한 나라의 경우, 국가 전략에서 기초 능력이 부족하여 교육에서의 재기의 기회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충분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청년들은 정책 형성에 관여할 기회가 거의 없지만,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5~24세 사이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구성원인 동시에 가장 약하고 권력이 없는 구성원이기도 하다. 그들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한 도전을 포함한 자신들의 삶에 대해 정책 결정자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된 자리에서도 소외계층 청년들의 의견은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청년 상담에 참여하는 이들은 교육을 받은 특권층이 대부분이며, 빈곤 계층의 대부분의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소외계층 청년들의 기술 능력 개발을 위한 재정 기여

공여자는 시급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청년들의 기술 능력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모든 청소년이 최소 중학교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국가 프로그램 지원을 해야 하고, 기초 문해력과 수리 능력 습득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재기의 기회'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며,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외 계층 청소년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사업 목표가 더 정확해야 한다. 단순히 모든 청소년을 하급 중등학교까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의 초등교육 보편화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 160억에 연 8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빈곤층이므로, 이 비용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 청소년이 공식교육 또는 '재기의 기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여자의 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빈곤국가에서는 지난 10년간 교육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렸다.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은 종종 고등교육에 대한 강조로 인해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부 공여자는 기초기술 교육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작년 모든 공여자로부터 총 30억 달러가 기술 능력 개발 분야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40%는 정규 중등교육과 직업훈련으로 분배되었다.

일부 공여자는 이 분야의 분배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 중 독일이 기술교육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 그 다음은 세계은행, 프랑스와 일본이다.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를 포함한 몇몇 소규모 공여국도 능력 개발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국가는 기술 훈련을 통해 이룬 놀라운 경제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 원조의 대부분은 개도국에 분배되지 않지만 2010년 프랑스 원조 2억4800만 달러의 60% 이상이 프랑스령 해외영토의 정규 중등교육과 직업훈련으로 분배되었다.

교육에 대한 외부 재정을 늘리기 위한 두 가지 잠정적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개도국의 청년을 선진국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 예산을 장학금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공여자가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에 중점을 두는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역량 개발 지원에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원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공여국에게 고등교육 장학금과 학생 귀속 비용(공여국이 개도국에서 학생을 받을



때 공여국 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조 분배 통계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2010년 고등교육에 분배된 4분의 3에 해당하는 31억여 달러의 직접 원조가 이에 해당된다(표.13).

2010년에는 40% 가까이 해당되는 일본의 교육 직접원조가 일본에 유학 온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분배되었다. 네팔 학생 한 명이 일본에서 유학하는 데 받는 장학금의 비용은 네팔에서 229명의 청소년들이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비용에 해당된다. 독일이 장학금과 학생 비용으로 분배된 원조 금액은 2010년 일반 중등교육과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직접 원조의 11배에 가깝다. 프랑스의 장학금과 학생 비용으로 분배된 원조 금액은 2010년 일반 중등교육과 직업 훈련에 들어가는 직접 원조의 네 배에 해당된다. 만약 공여국이 그들 국가로 유학 오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31억 달러의 일부를 개도국으로 재분배하여 돌려준다면, 아마도 기초 기술 능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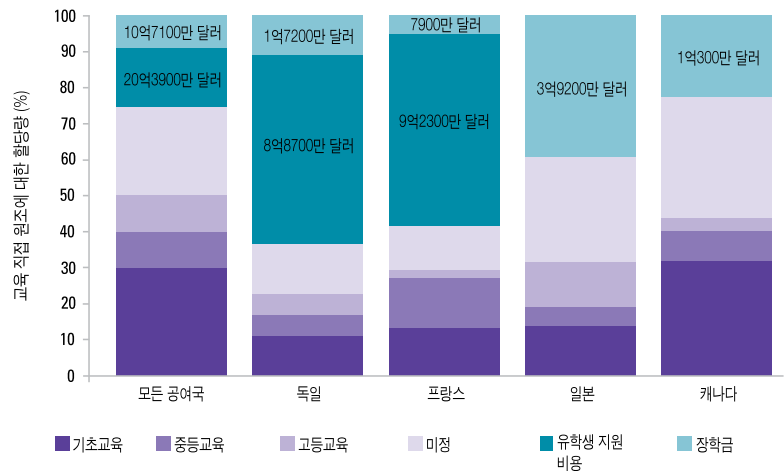
브라질, 중국과 인도와 같은 새로운 공여국은 기술 능력 개발 관련 원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소외 계층의 청소년을 목표로 하는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 능력 개발에 대한 투자를 노동시장 개혁과 연결시킨 자국의 경험과 빈곤 감소 경험을 토대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인도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한 연 9억 5천 달러 가량의 타 개도국 원조액 중 오직 2%만이 교육을 위해 쓰였다. 다른 새로운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조는 대부분 소외 계층 청소년이 접근하기 힘든 높은 수준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도 기술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특히 독일과 스위스 산업체가 청소년 실습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처럼, 기술을 습득한 노동력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민간 재단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마스터카드 재단은 청소년이 직업을 찾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이 현재 제공하는 금액은 이 문제의 규모에 비해 매우 적다.

정부는 다양한 재원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소외 계층 청소년이 관심을 받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 재정을 확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정해진 세금과 회사의 부과금, 공여자의 원조금을 포함한 여러 개의 재원에서 재정을 끌어 모은 훈련 기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부가 관리하고 분배하는 동시에 민간분야에서는 기술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네팔의 취업기금은 이와 같은 훈련을 소외 계층 청소년에게 확대한 접근 방법의 한 예이다. 이러한 훈련기금이 잘 관리된 곳에서는 그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튀니지는 1999년에 훈련 기금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미취업 상태였던 청소년의 4분의 1이상이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표 13〉 일부 공여국의 경우, '원조'의 상당 부분이 공여국에 머물러 있다

2010년 장학금과 유학생 지원 비용(imputed student costs)에 대부분의 교육 직접 원조를 가장 많이 분배한 4개의 공여국



비고: 이 표에서는 교육에 대한 직접 원조만을 보여주고 있음. 일반 예산 지원에 대한 교육 원조는 제외되었음.  
출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012).

### 중등교육: 취직을 위한 준비 단계

중등학교는 청소년이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넓은 범위의 능력, 관심과 배경을 포괄하는 질 높은 중등교육은 청소년이 직업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오늘날 기술 기반 사회에서 국가가 경쟁하는데 필요한 교육받은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7,100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학교 등록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있다(표 14). EU 회원국 청소년의 평균 14%가 하급 중등교육 단계 이후 단계로 진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스페인의 경우, 중등학교 학생 세 명 중 한 명이 중퇴하고 있고 이는 경제 불황과 2012년 3월 청소년 실업률이 51%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국가 차원에서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모든 국가에서는 중등교육이 직업 세계와 연결되도록 보장해야 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중등교육 진급으로의 장애물 극복하기

나는 책과 교복을 살 돈이 없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루일당을 벌어 가족의 소득에 보탬을 해야 했다. 나에게서는 학교에 가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했다.

- 젊은 남성, 인도 -

2010년에 고등 교육에 대한 원조의 4분의 3이 국내 학교의 장학금과 유학생 지원 비용(imputed student costs)에 쓰여졌다.

7100만명의 중학교 적령기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등학교 진학을 증가시킬 필요가 많은 빈곤국가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직접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니제르에서는 5명중 1명만이 하급 중등학교에 등록된 상태이고, 초등학교 순등록률은 62% 밖에 되지 않는다.

초등학교를 이수한 아이들의 경우, 중등학교에 다니는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중등학교는 종종 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를 감당하기 힘든 농촌 지역 빈곤층 아이들의 중등학교 진학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장애물로 인해 여아가 청소년기 연령이 되면 계속 교육을 받는 것이 힘들게 된다. 정부는 특히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하고 청소년이 기초 능력을 다질 수 있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

일부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초등교육과 하급 중등교육과 연결시켜 하급 중등학교 등록률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르완다에서는 2009년 기초교육 9년 과정 도입과 하급 중등학교 학비 폐지로 인해 1년 안에 하급 중등학교 학생이 25% 증가했다. 더불어 교육과정도 소수의 핵심 과목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었고, 새로운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학비는 정규, 비정규 교육의 여부를 떠나서 빈곤층 청소년의 중등교육으로의 진학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학비 폐지 제도가 소외된 계층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빈곤층이 아닌 이들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케냐는 중등학교의 학비를 없애 2007년에 120만 명에서 2008년 140만 명으로 등록률을 증가시켰다. 정부는 학교에 1인당 164 미화 달러로 보상하였고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당 받는 금액의 10배에 해당된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빈곤층 아이들은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위치에 있다.

조기결혼과 같은 뿌리 깊은 사회, 문화와 경제적인 장애물은 종종 젊은 여성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대다수 여성에게 교육을 그만두게 하고 있으며 그들은 학교로 돌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 남미, 남아시아에서는 15~19세 사이 여성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임신했거나 어머니가 된 상태다. 이 비율은 방글라데시, 라이베리아와 모잠비크에서 30% 이상 더 높게 나타난다.

젊은 어머니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이 있는 국가에서도 이 권리를 주장하는데 필요한 권한부여를 위해 더 많은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메이카에서는 한 재단에서 16세 이하의 임신 중이거나 어머니가 된 빈곤층 여아가 출산 이후 학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식량, 교통비를 포함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어머니들의 고등학교 이수율을 20%에서 32%로 증가시켰다.

## 중등교육과 직업 세계와의 연관성을 높이기

중등교육은 기초능력을 기반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양질의 직장을 찾거나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전문성 기술 및 직업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하급 중등학교의 공통교과과정은 모든 아이들이 기초 능력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에서 낙제할 위험이 많은 학생들이 같은 무리에 있으면 낮은 기대감, 지적 자극이 별로 없는 학습 환경과 급우효과(peer effects)로 인해 그들의 학업 성취도는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츠와나,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간다와 같은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새로운 평가제도, 학습자료, 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더불어 공통 교과과정 틀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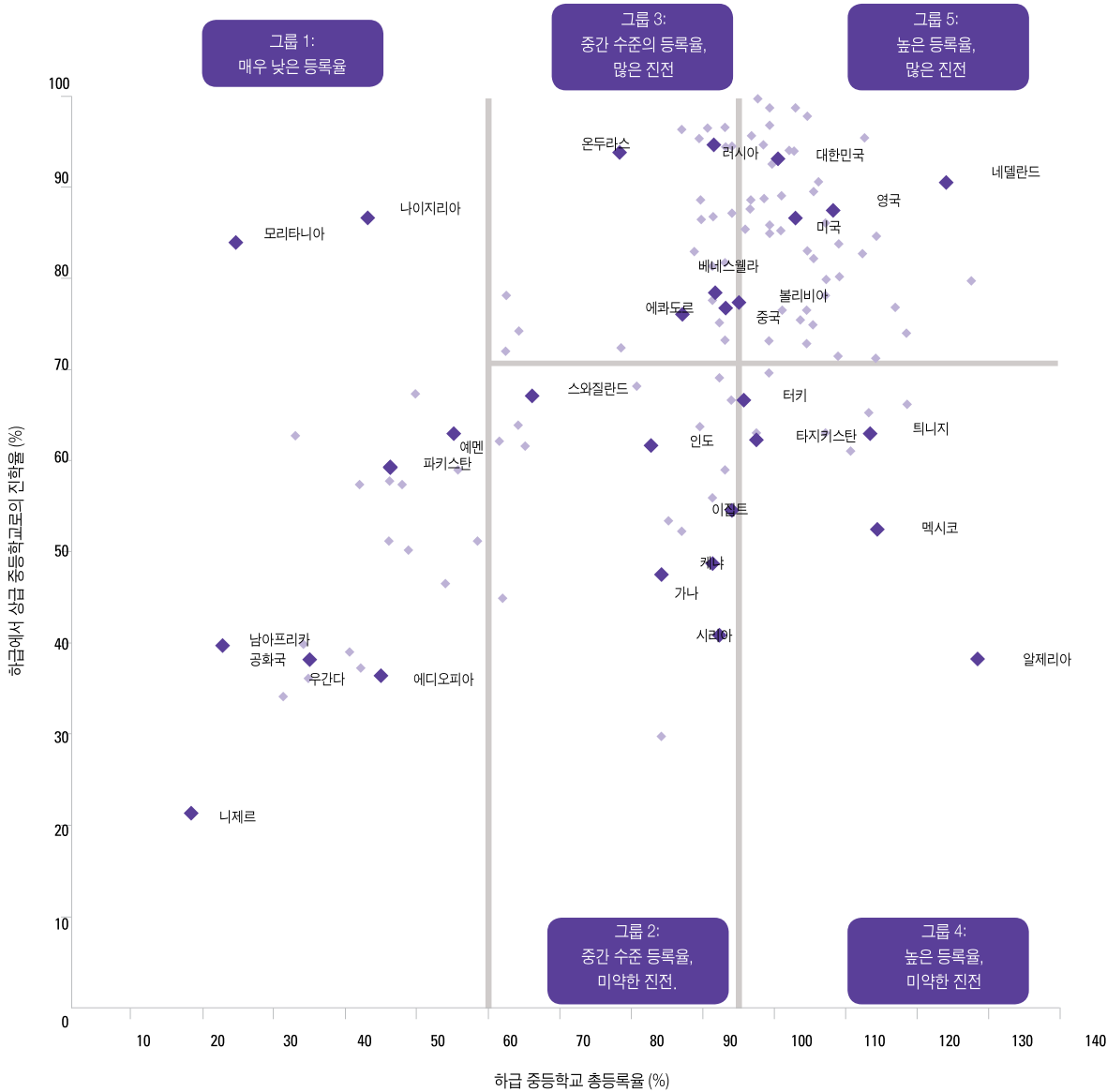
상급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무난한 전환을 위해 전문성 기술을 배워야 한다. 또한 특정 무역이나 직업 분야를 위해서는 직업기술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술과 능력을 조화롭게 취합하고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추는 것은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교과과정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직업기술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고용주들이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낮게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009년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설문조사에 참여한 22개국 중 18개국에서 직업학교로 간 학생들이 같은 나이의 일반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았다. 그중 일반계 중등학교와 실업계 중등학교간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가장 큰 네 개 국가는 소외계층 청소년이 실업계 중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했다.

OECD국가들의 사례는 직업기술 과목이 일반 과목과 같이 소개되고 노동시장과의 연관성이 더 많았을 때 등록률과 이수율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와 같이, 상급 중등학교에서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과 이러한 교과과정을 통해 고등교육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모든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많은 개도국에서는 이러한 융통성 있는 교과과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자원, 학습자료, 실력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 가나가 다양

〈표 14〉 전체 청소년 인구 중 일부는 중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상당수는 중등학교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다  
 국가별 하급 중등학교 총등록률과 하급에서 상급 중등학교로의 진학 대리 변수, 2010년



비고: 상급 중등학교로의 진학률은 하급중등에서 상급 중등으로의 진급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 지표이다. 이것은 상급중등학교와 하급 중등학교의 총등록률 비율로 계산하였다. 모든 하급 중등학교 학생이 상급 중등학교로 진급하는 이상적인 제도의 경우, 그 비율은 1이다. 온두라스는 하급 중등학교 총등록률이 75%이고 상급 중등학교 총등록률은 71%이다. 이 경우, 진학률은 95%로 계산되고, 하급 중등학교에 갈 기회를 얻은 학생들은 상급 중등교육 단계로 진학할 확률이 높음을 가리킨다. 이집트에서는 하급 중등학교 단계에서의 총등록률이 94%이다. 상급 중등학교 단계에서의 총등록률이 51%이므로, 이집트의 하급에서 상급 중등학교로의 진학률은 0.54 (51/94) 정도로 추정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하급 중등학교로의 참여 기회가 있는 반면, 상급 중등 단계로 진학하는 사람들은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출처: 부록 통계표 7.

확된 중등교육 교과과정을 도입한 이후 직업기술 관련과목 수는 50% 증가했으나 이 새로운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비용은 농촌 지역의 경우 수업의 질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보다 20배나 더 든다. 직업기술 과목을 위한 교사를 양성하고, 균등하게 자

원을 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농촌 지역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낮은 질의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직업기술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 Stefan Erber/UNESCO

### 학교교육과 직업 간의 연계 강화

대학과 학교는 보다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한다. 단순히 하루 동안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가 되면 안된다. 이들 동안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3일 동안은 직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직업 현장에서 경험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 젊은 여성, 영국 -

학교를 중퇴한 청년들은 종종 그들이 업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직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인턴십이나 실습제와 같은 학교를 일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청소년이 실무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중요한 업무능력을 연습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준다.

실습제는 종종 취직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완료하도록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실

습을 하게 되면 학교 졸업 후 3년 안에 취직될 확률이 증가한다.

실습제는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차별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흑인과 다른 소수민족 청소년의 32%가 실습제에 참여하는데 비해 백인 청소년은 44%이다. 여성은 실습할 곳을 찾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회를 잡은 여성들도 남성에 비해 임금을 21% 더 적게 받는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직업상담은 소외계층 청소년이 실습 자리를 찾고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하거나 그 경험을 토대로 직장으로 쉽게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규 실습제도는 빈곤국가에서 실행되는데 더 어려움이 많지만 적절한 조건하에서라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이집트는 기업 연합이 훈련을 제공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독일의 모델을 자신들의 맥락에 적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의 3분의 1은 즉시 직업을 찾을 수 있었고 40% 정도는 그 이후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정부와 고용주간의 강한 신뢰를 바

탕으로 한다. 이것은 비공식 분야가 매우 큰 다수의 저소득 국가에서 찾는 것이 어렵다.

### 모두를 위한 전용성 기술: 필요한, 그러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학교에서 습득한 능력은 과목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확장되어야 한다.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국제 경제 속에서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상황에서의 지식 적용, 분석과 문제해결, 동료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등의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몇몇 국가에서는 전용성 기술과 능력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 뉴질랜드와 홍콩(중국)은 모두 문제해결능력 개발을 교과과정의 주요 요소로 만들었다.

교육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학습경험을 향상시키고 중퇴율을 낮출 뿐 아니라, 청년들이 직업사회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 컴퓨터는 특히 빈곤국가의 일부 학교에서 너무 비싸거나 그 수가 부족할 수 있지만, 라디오나 이동전화기는 외진 지역까지 닿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와 남수단에서 활용된 쌍방향의 라디오 강의는 소외계층에게 적은 비용으로 학습 기회를 증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ICT 기술의 활용은 학업성취도를 20%까지 끌어올렸다.

### 조기 중퇴자를 위한 대안 방안 제공

중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에서조차 많은 수의 청소년이 중등학교를 마치기 전에 중퇴하고 있다. 학교를 조기중퇴하는 사람들은 소외계층이나 빈곤계층일 확률이 높다. 그들이 취직 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자격과 기술 습득을 위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와 필리핀에서는 학교에서 중퇴할 위험이 높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접근 방안을 도입하였다. 그 중 한 예로 조기 중퇴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 학기 중 아무때나 재입학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이 있다. 뉴욕시에서는 17세와 24세 청년 다섯명 중 한명이 학교에 있지도, 직장에 있지도 않다. 이러한 뉴욕시에는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보수가 있는 인턴십, 개인 상담과 워크숍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9개월 안에 절반이상이 직업을 찾았고, 5분의 1정도는 기초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재입학했다.

원격강의와 지역사회 훈련센터와 같은 중등학교 밖 대안 학습 체제는 지역의 노동수요에 신중하게 맞춰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을 지원받아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 습득되는 능력은 고용주들

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 자격제도 또한 이러한 대안 학습 체제로써 학생들이 받은 교육의 내용을 고용주에게 제공해준다. 제도가 잘 고안될 경우, 이것은 공식 중등교육 밖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각각의 기준과 자격 제도를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 훈련기관, 고용주와 무역 협회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 도시 지역 청소년의 기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

오늘날 도시 지역의 청소년 인구는 역사상 가장 많고, 아직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았고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변화를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다. 자연 증가와 농촌 지역으로부터의 이주의 결과로 향후 30년간 모든 전 세계 인구의 성장은 도시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 빈곤계층 청소년의 기초기술 부족

빠른 도시화는 도시 지역 빈곤을 심화시켰고, 이는 슬럼가의 확대와 불법거주민의 경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오늘날 도시 사람 세 명 중 한 명은 슬럼가에서 살고 있고,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세 명 중 두 명꼴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집계는 슬럼가에 8억 명 이상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수치는 2020년까지 8억89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인구 중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다. 기술 훈련과 직업은 그들에게 거주지와 좋은 직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 좋은 상황에서의 대안을 제공해준다.

도시 지역 빈곤층의 교육 박탈과 그 심각성은 많은 경우 간과되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의 불평등은 보통 매우 극심한 편인데, 이것은 슬럼가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농촌의 빈곤층보다 좋지는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처럼 도시 빈곤의 범위와 심각성은 과소평가되고 있다.

많은 개도국의 도시 지역에서의 교육 기회가 농촌 지역보다 더 확대되어 있는 반면 도시 빈곤층과 농촌 빈곤층간의 기초 기술 능력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다. 45개의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도시 부유층이 도시 빈곤층보다 최소 하급 중등학교를 이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중 10개국에서는 기초 능력이 부족한 15~24세 사

영국에서는  
여성 실업생이  
남성보다 21%  
더 적게 벌고  
있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는 도심지역의 빈곤 계층 청소년이 농촌지역 빈곤 계층 청소년보다 교육을 덜 받고 있다.

이의 도시 빈곤층 청소년 비중이 농촌 빈곤층보다 오히려 더 크다 (표 15).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는 도시 지역 빈곤 청소년의 90%가 하급 중등학교를 이수하지 않았고, 이에 비해 농촌 지역 빈곤층은 82%가, 그리고 도시 부유층에서는 31%가 이수하지 않았다. 나이로비 주민의 60%가 슬럼가에 살고 있는 케냐에서는 슬럼가의 중등학교 부족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공식교육을 받은 청소년에게 좋은 직장을 찾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도시 빈곤 계층 청소년은 주로 비공식 분야에 취직한다

오래가는 직업을 찾는 것은 어렵다. 제일 길게 일하는 기간이 일주일일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나는 하루에 1.7불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

- 젊은 남성, 에티오피아

도시 빈곤층 청소년의 기술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아무런 장부기록, 법적지위나 규제가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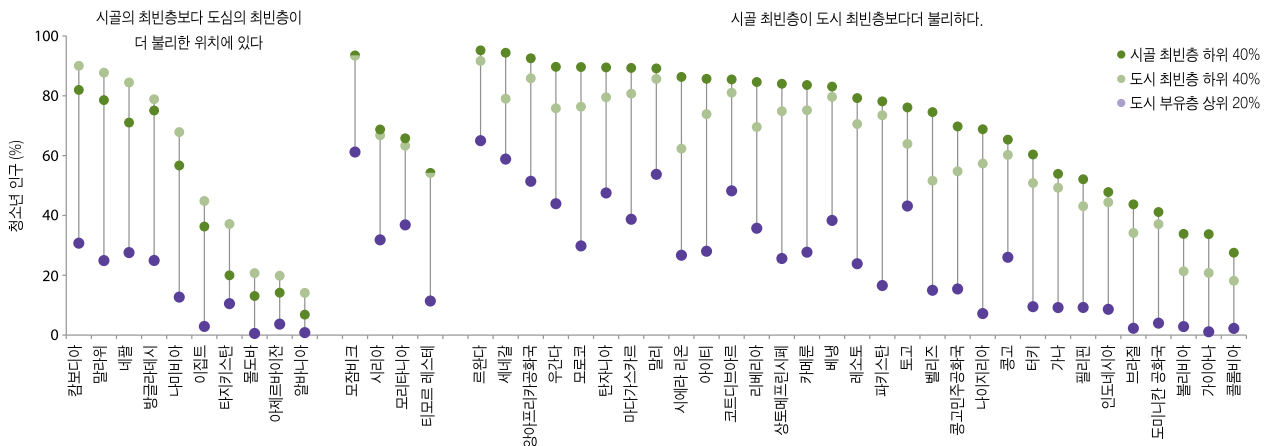
이러한 비공식적 일은 거리 청소와 노점운영, 바느질과 옷감 만들기, 자동차 수리, 막노동, 농사일과 공예 등과 같이 근근이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은 비공식적이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종 매우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작업환경도 매우 안 좋은 편이다.

규제가 취약하거나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전 세계 인구수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나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를 대략 15억3천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공식 분야는 일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비농업 분야의 70%까지 해당되기도 한다. 그리고 남미의 빈곤국가들의 경우 반 이상이다. 또한 서남아시아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교육과 노동시장 두 분야 모두에서의 차별은 특정 집단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의 젊은 여성이 교육과 훈련, 보수가 있는 노동에 대해 제한된 접근과 이동성을 마주하고 있고 동시에 고된 무보수 일과 집안일을 하고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39개국 중 25개국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수의 여성이 비공식 분야 및 정규분야 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이 참여하는 활동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많은 경우 집안일에 관련된 일로 제한되어 있고, 다수의 여성이 거리 청소나 노점 판매와 같이 가장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직장내에서 남성보다 임금을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의 비공식적 회사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남성보다 20% 더 적게 받고 있다.

이 비공식 분야는 젊은 사람들이 적절한 능력을 습득했을 때 더욱 매력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초등학교나 하급 중등학교를 마친 서아프리카 일곱 개 수도에 살고 있는 비공식 분야 종사자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보다 20%에서 50%까지 더 많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초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표 15〉 도시 부유층과 빈곤층간의 큰 격차  
재산, 거주지별 15세에서 24세 사이의 하급 중등학교 중퇴자 비율, 선정된 국가, 자료가 있는 최신 연도



출처: UIS (2012a).

이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2006년 르완다에서는 비공식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12%만이 하급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이에 비해 공식분야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는 40%나 된다.

###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기술훈련 기회 확대

경제 불황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최저 빈곤선 이하 수준의 임금으로 비공식 저기술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의 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기술발전 전략에서 가장 우려될 만한 사항이지만, 아직 국가에서 중시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된 46개국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 기술 발전 전략에서 도심의 비공식 분야 직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인 인도에서는 비공식 분야 노동자들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인도는 또한 길거리 판매자에 대한 국가 정책도 세웠다. 이 정책에서 인도는 1,000만 명 정도가 길거리 판매를 통해 소규모 장사를 하고 있으며 그들이 소득을 늘리고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 그들의 기술적, 기업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기의 기회’ 프로그램들은 도심 빈곤층 청소년의 문해력과 산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NGO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세계에서 ‘재기의 기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질이 낮으며 정부에서 활동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15세에서 24세 사이 청소년의 기초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네팔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직을 위한 훈련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도하도록 하는 면에서 성공적이었다. 참가 학생들의 66%가 카스트의 불리한 계층이거나 소수민족 출신이었다. 206개의 프로젝트 참가자의 향후 취직 상태를 파악한 보고서에서는 73%가 직장을 구했다고 보여주고 있다.

기술 훈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잠재적인 방법은 단기적으로 참여자에게 빈곤을 극복하게 해주는 소규모 자본이나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견비하는 것이다. 2002년에 도입된 칠레의 솔리다리오 프로그램은 현금 지급을 취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에 대한 선택적 접근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지원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낮은 교육 수준과 전문 경험이 아예 없거나 적은 빈곤층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5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의 취업률은 4%에서 6%까지 증가하였고, 일부는 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남미와 캐리비안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 일반 무역 및 특수 무역에 대한 교육과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평생교육, 구직 지원, 상담과 취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도시의 소외된 청소년층, 특히 젊은 여성에게 더 효율적이었다. 콜롬비아에서는 행동하는 청년(Jovenes en Accion) 프로그램을 이수한 여성의 임금이 평균 거의 20%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들이 공식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밀접하게 연결된 교실에서의 훈련과 다양한 직업현장에서의 훈련이 견비되어 시행된 결과이다. 페루에서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PRO Joven)이 남성의 구직률을 13%까지 끌어올렸고 여성은 21%까지 향상시켰다.

남미에서 시행된 대부분의 청년 프로그램은 국가의 공식훈련기관에 통합되었거나 엔트라 21과 같은 다른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아랍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는 목표가 분명한 프로그램은 소외된 계층의 청년의 취업률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비가 비쌀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충분히 많은 회사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때문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공식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적은 일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 소외계층 청소년의 기초 능력 넘어서기

기초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도시 청소년의 경우, 정부는 전용성 기술 및 직업기술 훈련을 목표로 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잠재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비공식 분야의 중소기업의 기술 훈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실습제는 많은 청소년이 비공식 분야에서 취직하게 해줄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이것은 비용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고, 실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종종 취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실습제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나에서는 최빈층 청소년의 11%만이 실습제도에 참여한 데 비해 부유층에서는 47%가 참여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실습제도가 남성 노동자에게 더 유리해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전통적인 도제제도를 이원적인 실습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이 1990년대와 2000대 사이에 베냉과 토고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있었다. 이원적 실습제도는 이론적인 학습과 실무적인 훈련을 겸비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정부와 비공식 분야를 대표하는 집단,

현금 지급이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실행된  
칠레에서는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였다.

가나에서는 빈곤층의 11%만이 견습제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반해 부유층은 47%가 참여할 수 있었다.



© Sven Torfinn/PANOS

그리고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성공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이원적 실습제도는 국가의 직업기술훈련 제도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개혁된 실습제도의 비용이 공식 훈련코스의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카메룬과 세네갈에서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조직 역량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도제제도를 공식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이원적 실습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보다 수월한 정책 선택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비공식 분야 단체 연합이나 다른 직종의 단체와 협력하여 고안되고 실행되었을 때 특히 더 효율적이다.

실습제의 점진적 도입은 실습생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규율을 포함한다. 이는 전통적 제도에서 흔히 있는 우려사항이다. 이 규율

은 하루당, 그리고 일주일간 노동시간의 제한, 각 직업 종류마다 훈련 기간의 최대 기간, 그리고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 실습생의 능력과 일 경험을 국가의 자격제도를 통해 인정해 주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직업교육의 가치를 높일 것이고 그들의 취업률을 향상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생계유지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자영업을 하는 것이다. 아랍국가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도시 청년들이 실제로 자영업을 유망한 분야로 여긴다. 2008년도에, 이집트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청년 인구의 73%가 기업가가 되어도 좋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하지만 도시 빈곤층 청년들은 기업가적 능력이 부족하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가나의 사례는 참가자의 기초 능력이 부족하고 기업가 능력을 습득한 후 이를 적용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한 경우 기업가 훈련의 효과는 줄어들었다.

따라서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 훈련을 위한 교과과정은 기초 문해력과 산수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청년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과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 농촌 청소년을 위한 기술: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구

나는 농촌 출신이다. 농촌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별로 높지 않다. 가족들은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는 것을 권장하지 않지만, 나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서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생이 되려면 교육 자료가 필요한데 나는 이것을 살 돈이 없었다.

- 젊은 남성, 에티오피아 -

전체 빈곤층의 70%에 해당하는 약 10억 명의 사람들은 저소득과 일부 중소득 국가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집중적 분포해있다. 이 지역거주자들은 대부분 작은 규모의 농사, 계절별 임시 노동자와 낮은 수입이 예상되는 소규모 기업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와 식량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용 가능한 토지가 점차 적어지고 있으므로, 기술 역량 발전이 중요하다. 이는 농촌 지역 청소년이 농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농사 외의 일을 찾기 위한 기회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하다.

### 농촌지역 여성의 교육적 소외

농촌 지역의 많은 빈곤층 청소년, 특히 젊은 여성의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젊은 세대를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일만 반복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농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급 중등학교를 마치지 않는 국가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베냉, 카메룬,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에서는 기초 능력이 부족한 젊은 농촌 여성의 비율이 85%인데 비해 젊은 남성의 비율은 70% 이하이다. 중소득 국가인 터키마저도 농촌지역 내 성별 격차는 크다. 젊은 여성의 65%가 하급 중등학교를 이수하지 않았고, 이에 비해 젊은 남성의 36%만이 이수하지 않았다(표 16).

여성은 교육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자본 및 능력도 부족하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낮은 기술의 직종에 계속 남아있다.

여성을 포함한 농촌 지역 청년의 교육과 기술훈련을 증대시키는

것은 특히 그들의 기회를 확대시켜줄 뿐 아니라, 그들의 생산성을 농업 외 직종에서 그들의 가족과 전체 경제에도 이득이 될 것이다.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비농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최소 초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의 월급이 훨씬 더 많다.

기초 능력을 가진 농촌 청년은 농업 외 직종에서 일할 기회가 더 많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된 8개국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비농업 직종에 고용될 확률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터키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 중 23%가 비농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고, 이에 비해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40%, 그리고 최소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64%이다.

### 농촌 지역의 기술훈련 수요 해결

이 보고서에서 분석된 46개국가중에서 절반정도만이 그들의 국가 정책에서 농촌 지역 빈곤층의 특수 훈련과 기술 수요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빈곤층의 수요를 우선시하는 국가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예로 중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소규모 농업과 비농업 분야의 자영업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였고 그로 인해 최저 생계 이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구수를 줄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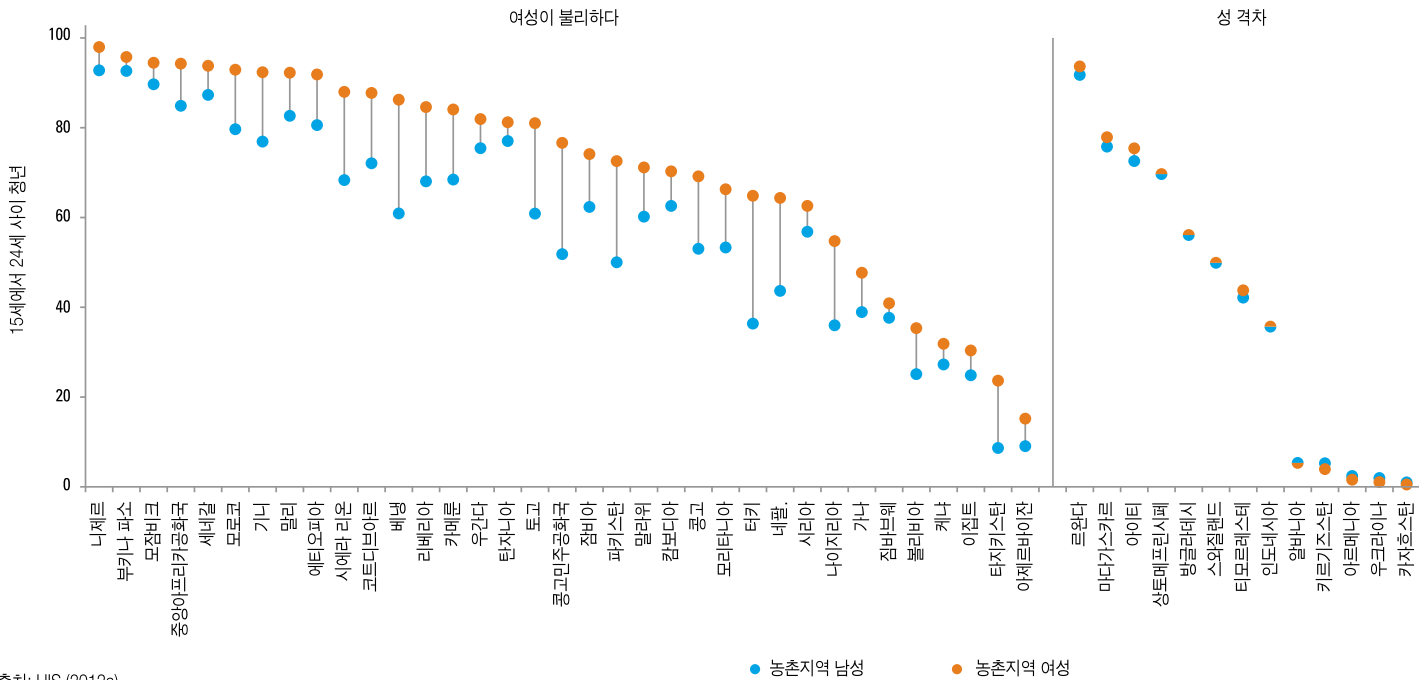
모든 청소년의 기초 기술 습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농촌 지역에서는 매우 큰 도전이다. 인구가 다양하고 그 수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촌 지역 청소년이 기업이나 농업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 공식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농촌 환경과의 연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재기의 기회' 프로그램도 강조되어야 한다. '재기의 기회'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 청소년의 기초능력과 농업, 비농업 분야와 연관된 기술 훈련을 함께 제공한다.

인구의 85%가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이의 절반이 중퇴하는 말라위에서는 '재기의 기회' 프로그램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교에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거나 중퇴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이 코스를 이수하거나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하였다. 참가자들은 공식 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문해력과 수해력에 있어 더 나은 성취도를 보여주었다.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농촌인구가 많은 빈곤국가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터키에서는 농촌지역의 젊은 여성의 65%가 하급 중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다.

〈표 16〉 농촌지역의 젊은 여성은 기초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성별 하급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청년(15~24세 사이) 비율. 선정된 국가의 농촌지역. 자료가 있는 최신연도



출처: UIS (2012a).

말라위에 있는 '재기의 기회' 프로그램은 종종 초등학교보다 더 효과가 있다.

프로그램은 또한 젊은 여성이 겪는 특수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008년 이집트에서는 17세에서 22세 사이 농촌 여성의 20%가 학교 교육을 2년 이상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 중 다수는 어린 나이에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집트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인 이쉬라크(Ishraq)는 농촌 지역의 가족, 지역 지도자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그들이 여아의 문해력과 산수능력 습득 이유에 대한 논리를 만들도록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적 편견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쉬라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 참가자들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최종 시험을 통과하였다.

농촌 지역 빈곤층 여성의 문해력, 산수능력 습득, 소규모 자본(microfinance) 관련 능력/기술 습득, 그리고 사회 보호 프로그램은 그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확대해줄 것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선구적으로 시행한 곳으로는 방글라데시의 BRAC과 아프리카의 캄페드(Camfed)를 들 수 있다. BRAC은 농촌 빈곤층 가정에게 소와 같은 생계를 유지시켜줄 자산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자본에 대한 훈련과 투자의 이익을 높여주는 마케팅에 대한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가구별 1인당 소득이 거의 3배로 증가하였다. Camfed는 농촌 지역 빈곤층 성장기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기술, 보조금, 소규모 대출과 또래 간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은 창업한 젊은 여성의 90% 이상이 이익을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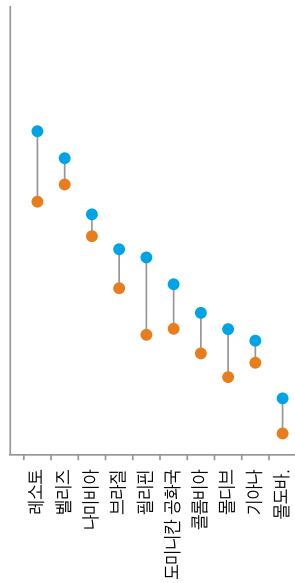
### 농촌지역 청년의 추가적 기술교육

농촌의 일이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 능력을 넘어서는 훈련을 제공하여 소규모 자작농이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농업 종사자는 그들의 사업과 재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연합을 구성하는 것 또한 농촌의 노동자들이 기술을 배우고 공동체의 의견을 강화하도록 해 줄 것이다.

농업현장학교와 협동조합, 이 두 가지 접근이 성공적이었음이 드러났다. 케냐, 우간다, 그리고 탄자니아 연합공화국에서는 농업현장학교가 매우 중요한 발전으로 이끌었다. 이 접근을 통해서 특히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이 세 국가에서 1에이커 당 농작물의 가치가 평균 32% 증가했고, 공식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253% 증가했다. 소득은 평균 61% 증가했고, 이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가장이 있는 가정의 소득은 224% 증가했다.

생산적인 학습과 새로운 기술의 실용적인 활용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라디오와 비디오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부르키나 파소, 인도와 니제르의 사례에서는 특히 라디오와 같은 정보통신기술(CT)의 사용과 함께 훈련을 실시한 것이 많은 수의 소외된 농부에게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남성이 불리한 국가



입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술적인 훈련, 경영 훈련과 함께 양성 문제에 대한 훈련, 그리고 훈련참가자 가족, 지역사회와 협력단체의 양성평등 교육이 합쳐진 것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현장학교는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빈곤한 농부들에게 혜택을 준다.

비농업 분야의 혁신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젊은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남아있도록 해 줄 것이다. 남미의 농촌 지역에서는 여러 개의 소수 민족 청소년을 포함한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와 소규모 창업 훈련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이 중 여러 프로그램이 인상적인 결과를 낳았다.

멕시코에서는 청소년의 토지에 대한 제한된 접근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농촌 청소년 기업가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JERFT 프로그램 (Young Rural Entrepreneur Programme and Land Fund)이 2004년에 실시되었다.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기업식 농업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년 내에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그들의 소득을 5분의 1 증가시켰다.

기술교육 훈련은 농업 혹은 그 이외의 것을 다루는 경우에도 각자의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부족한 기술에 대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안한 저개발국 농촌여성 경제력향상 과정(Training for Rural Economic Empowerment, TREE)은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급을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맞추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지역적 맥락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여성이 기기와 컴퓨터 수리와 같은 비전통적인 분야에 진

# 청년과 기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



청년의 기술과 능력 개발 지원을 실천하기 위한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열 가지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방법들은 각 나라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 1 기초 능력이 없거나 매우 낮은 청소년에게 '재기의 기회' 교육을 제공하기

저소득 국가 및 중저소득 국가에서 초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2천만 명의 청소년을 위한 '재기의 기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더 큰 차원에서의 조정과 적절한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공여자의 지원을 받아 '재기의 기회' 교육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만들어 기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 인구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분야의 전략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재기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 청년의 수에 근거하여 예산이 분배되어

야 하며 이는 국가 예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2 중등교육의 접근가능성 높이기

청년의 기초 능력이 부족한 국가는 취약 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 이 최소 하급 중등학교까지의 교육에 참여하고 진급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물을 해소해야 한다. 학비 폐지, 목표가 있는 재정 지원 제공, 하급 중등교육을 초등교육과 연계, 모든 어린이에게 핵심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공통 교과과정 제공, 충분한 수의 등록 가능한 공립학교 확보,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접근성 확대는 하급 중등학교로의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모든 청소년이 하급 중등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적절한 양질의 보편적 하급 중등교육 성취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인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가 성취되도록 장기적 교육 계획에서 전략과 재정 자원을 명시해야 한다.

## 3 사회적 소외계층의 중등교육 접근성 확대 및 중등교육과 직업의 연관성 향상시키기

상급 중등교육은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급 중등교육은 직업 기술적 과목과 일반과목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과목 선택을 제공하는 융통성과 직업 현장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중등학교 교과과정 개혁은 학습자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술(ICT)을 도입해야 한다.

세 번째로, 중등학교를 중퇴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 예로 소외계층 청소년의 학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격교육센터가 있다. 대안교육을 통해 얻은 능력과 기술을 인정하는 적절한 제도나 직업현장에서 인정해주는 비슷한 수준의 중등교육 자격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4 도시 지역 빈곤층 청소년에게 더 나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기술 훈련 제공하기

정부는 전통적인 실습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실습생의 작업환경을 개선시켜야 하며 기술이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실습제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실습제를 통한 교육이 기업과 산업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져 있음을 확인시켜줄 것이고 실습생들이 더 넓은 범위의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정부의 전략은 자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청년들의 사업 초기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켜주는 것은 그들이 습득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 5 농촌지역의 빈곤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기

농촌 지역의 많은 청소년에게는 기초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와 함께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농업 기술 훈련도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 농부의 필요에 맞추어 개발되고 농업현장학교와 협동조합을 통해 이행되는 훈련 프로그램은 특히 효과적이다. 한편, 다수의 농촌 청년들은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업 능력과 재정 관리에 대한 훈련도 그들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또한 청년들이 농촌지역에 남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 6 최빈층 청소년을 위한 기술 훈련을 사회적 보호와 연계시키기

생산적인 자산 전환과 같은 소규모 자본이나 사회적 보호를 기초 문해력과 산수능력을 위한 훈련,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함께 같이 제공하는 것이 청년층의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 7 소외계층 여성의 기술훈련 우선시키기

젊은 여성이 처한 교육적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 프로그램들은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젊은 여성에게 소규모 자본과 생계를 위한 자산, 자산이 소득으로 오기까지의 생활비, 그리고 자산을 활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원을 자신과 가족에게 유리하게 통제하도록 유도한다.



© Jon Yamamoto/UNESCO

#### 8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기술 활용하기

정보통신기술(ICT)은 더 많은 청소년에게 훈련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라디오와 같은 기본적인 기술도 기술 훈련, 특히 변방의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젊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 9 데이터 수집 강화와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해 제도 개선하기

정부는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당사자들을 이끌어 이러한 기회가 국가적으로 우선시되는 대상인 소외 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분열되고 중복된 노력을 줄일 수 있고, 공평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기술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모니터링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유네스코 통계국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하급과 상급 중등교육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것은 중퇴율, 이수율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일반과목 및 직업기술 관련 과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성별 과목 선택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할 것이다.

공식 교육제도에 대한 데이터 외에도 '재기의 기회' 프로그램이나 전통적 도제와 같은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도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데이터와 노동 시장과의 상관관계 성립을 위해 요구된다. 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가진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러한 데이터를 국가 정부로부터 수집하여 배포하는 역할에 적합하다. 국제사회는 또한 청년 및 성인 인구의 다양한 기술을 보다 더 제도적으로 측정하려는 최근의 동향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에 청년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적인 불리함을 겪고 있는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제한요소와 적절한 해결책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또한 기업체와 무역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직업현장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0 소외계층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정 지원받기

특히 빈곤국가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탄탄한 기초 교육을 받고 최소한 하급 중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재원이 시급하다. 정부와 원조 공여자들은 '재기의 기회' 교육을 더 큰 규모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물색을 우선시해야 한다. 현재 공여자가 개도국 학생이 공여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과 귀속 비용(imputed cost) 31억의 일부가 재분배된다면 모든 청소년이 하급 중등학교를 이수하게 하는데 필요한 80억을 조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분야에서도 재단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더 큰 규모로 제공되어야 하고 국가의 우선순위와 긴밀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정부, 원조 공여자와 민간의 재원을 한데 모으는 기술 훈련 지원 기금은 비공식 분야를 포함해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는데 성공적이었다. 이와 같은 기금은 추가 자원 발굴 외에도 정부, 기업체, 공여자, 무역 연합, 청년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면에 있어서 더 많은 발전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과 기술 배움에서 일터로

10번째로 발간된 『EFA 세계 현황 보고서』는 모든 청년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청년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2억명에 달한다. 특히 젊은 여성을 비롯한 많은 도시 지역 빈곤층이나 지리적으로 고립된 농촌지역 청년들은 상당수가 미취업 상태이거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청년과 기술: 배움에서 일터로”는 정부가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직업 세계에 입문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EFA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재원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정부, 공여자, 민간분야 등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여개 국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EFA 6대 목표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따르면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표시점인 2015년에 임박해감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교육의 진전이 멈추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전 세계 EFA 달성 정도를 평가한 『EFA 세계 현황 보고서』는 교육정책 관계자, 개발 전문가, 연구자, 언론, 외에도 보다 발전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교육의 힘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이다.

나는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를 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센터에서 기술을 배우면 관련된 연습도 할 수 있고, 자격증을 받은 후에는 바로 취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는 단순히 이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컴퓨터를 조립하고 수리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었다.

- 젊은 남성, 베트남.

내가 관심을 갖는 직업군에 대해 조언해주고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 내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나는 분명히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젊은 여성, 에티오피아.

대학과 학교는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하루 동안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가 되면 안된다. 이틀 동안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3일 동안은 직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직업 현장에서 경험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 젊은 여성, 영국.

우리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직장을 얻는 것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어렵다. 우리에게서는 발전의 기회가 없다.

- 젊은 남성, 인도

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기회는 필요하다. 우리는 일하고 싶고 국가에 기여하고 싶다.

- 젊은 여성, 이집트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나는 계속 공부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취직을 하지도 못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까?

- 젊은 남성, 멕시코



UNESCO  
Publishing



[www.unesco.org/publishing](http://www.unesco.org/publishing)  
[www.efareport.unesco.org](http://www.efareport.unesco.org)